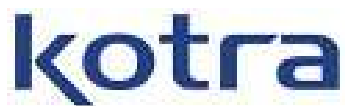


칠레

정보수정일자: 2009. 12. 31

작성처: 산티아고 KBC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 국가개요 /1
- 정치사회동향 /2
- 한국과의 주요이슈 /5

II. 경제

- 경제동향 및 전망 /6
- 주요 산업 동향 /8
-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11

III. 무역

- 1. 교역동향**
 - 수출입 동향 /13
 -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16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 수입규제제도 /18
 - 대한수입규제동향 /19
 - 관세제도 /19
 - 주요인증제도 /20
 - 지적재산권 /21
 - 통관운송 /23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29
- 외국기업 투자동향 /30
- 우리기업 투자동향 /31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33
- 진출형태별 절차 /37
- 투자입지여건 /40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43
- 조세제도 /45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49

V. Business 참고정보

- 시장특성 /50
- 물가정보 /51
- 바이어발굴 /52
-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54
- 무역,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57
- 진출 성공, 실패 사례 /58
- 이주정착 가이드 /59
- 출장가이드 /62
-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79
- 유관기관 웹사이트 /80



1992 MAGELLAN GeographixSMS Santa Barbara, CA (800) 929-4627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칠레공화국(República de Chile)
위치	남미, 태평양 연안
면적	약 757,000 km ² (한반도 면적의 3.4배, 남한면적의 7.7배)/(남극령 포함 시 약 200만km ²)
국토길이	약 4,270 km
기후	북부(사막기후), 중부(지중해성 사막기후), 남부(온대성 한랭기후)
수도	산티아고(Santiago)
인구	16,928,873 명(* 통계청 2009년 인구 전망치 기준)
주요도시	산티아고(500만 명), 콘셉시온(100만 명), 발파라이소(96만 명) 등
민족(인종)	메스티소(66%), 백인(29%), 인디오(5%)
언어	스페인어
종교	가톨릭(85%), 개신교(10%), 불교, 이슬람교 등 기타종교 5%
건국(독립)일	1810년 9월 18일, 스페인으로부터 자치정부 수립선언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임기 4년, 연임 불가, 중임 가능)
국가원수(실권자)	Michelle Bachelet 대통령
입법부	상, 하원 양원제
정당	여당- 여당연합(PDC, PPD, PS, PRSD) 야당- 야당연합(RN, UDI)
정부성향	중도좌파

주: 주요도시 인구 2002년 인구센서스 기준, 차기 인구센서스는 2012년 예정

자료: 칠레 통계청

나. 경제지표

연도	2006	2007	2008	2009(예상)
GDP(US\$백만)	145,205	152,000	156,808	135,773
GDP증가율(%)	4.6	4.7	3.2	-1.2
1인당GDP(US\$)	8,941	9,881	10,123	7,994
물가상승률(%)	2.6	4.4	8.7	1.9
물가지수	86.60	93.38	100	98.97
연평균실업률(%)	7.8	7.0	7.8	10.3
고용(천명)	6,272	6,448	6,601	6,498
수출(US\$백만)	57,727	66,651	65,102	47,540
수입(US\$백만)	35,974	46,201	60,419	36,084
외환보유고(US\$억)	194	169	231	252
외채(US\$억)	492	586	611	605
이자율(%) (정책금리, 12월 기준)	5.02	5.31	7.10	3.21
달러당환율(페소)	530.7	495.8	629.1	542.5

자료: 칠레중앙은행, EIU

다. 한-칠레관계

체결협정	무역협정('78 발효), 항공협정('79 서명), 경제기술협력협정('83 발효), 문화협정('84 발효), 과학기술협력협정('96 발효), 범죄인인도협정('97 발효), 투자보장협정('99 발효), 이중과세방지 협정(2003 발효), 원자력협력협정('06 발효), 한-칠레 FTA 발효(2004.4.1), 세관협력협정('06 발효),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08 발효)
교역품	수출: 디젤, 자동차, 전자제품 등 수입: 구리, 목재, 수산물 등
교민	약 2,000명의 교민 중 80% 이상이 산티아고市 Patronato 지역 또는 Estacion Central(중앙역) 지역에서 의류·직물, 액세서리, 잡화류 도소매업과 봉제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점차 업종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타 일반 인쇄업 및 특수 인쇄업 종사자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민 2, 3세의 현지진출 한국기업으로의 취업 또는 전문직 종사도 증가하고 있다.

자료: 외교통상부

2. 정치 사회 동향

가. 바첼렛 대통령 지지율 상승

칠레 여론조사기관인 Adimark 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 칠레 대통령인 미셸 바첼렛(Michelle Bachelet)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67% 수준으로 취임 이후 최고수준의 지지율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민정부 출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 년 산티아고 시의 새 대중교통 시스템인 Transantiago 의 불안정한 운영 및 시민들의 불편초래, 전력공급불안, 인플레이션, 실업률 등 여러 악재가 겹쳐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반면 2008 년의 경우 높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운영과 효과적인 저소득층 지원책 마련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정부 각료들 가운데에는 Andres Velasco 재무장관에 대한 지지율이 66.8%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칠레 국민들의 경제위기에 대한 관심 및 현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정부 전체에 대한 지지율은 54.6%로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11.2%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경기악화에 따른 범죄율 증가와 계속되는 공공기관의 부패 사건 빈발 등의 요인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신재생에너지 투자유치 본격 확대

칠레 정부는 지난 2008년 국가환경보호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목적으로 일명 Ley Tokman을 제정, 2010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동 법안은 2010년부터 200MW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전력기업은 연간 전력생산량의 5%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생산전력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 부족 전력량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 법안은 2008년 1월 칠레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2024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칠레 에너지부(Ministerio de Energia) Marcelo Tokman은 동 법안을 칠레 전력공급선 다양화 및 미래 전력생산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정의하였으며 동 법안을 통해 미래에 전력불안 해소는 물론 더 안전하고, 더 깨끗한 전력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현지 민간 전력사업자들은 2008년 이후 동 법안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본격화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직접투자보다는 동 분야 전문기업이 생산하는 전력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대 칠레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는 스페인, 노르웨이 등 유럽의 전문 기업들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Endesa, Colbun, AES Gener 등 칠레 주요 전력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는 아직까지 미미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칠레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자극을 위해 이례적으로 정부발주 소규모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대기업들 또한 2009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분야 자기업을 통해 EPC 형태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 2009 인플레이션 안정세

대내외적인 악재로 인해 2007년 말부터 지속된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칠레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었으나 2008년 9월 국제금융위기와 세계경기침체의 여파로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8년 폭발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서민층의 생활고 가중 및 정부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했었으나 2009년 1분기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함에 따라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정부의 경기부양정책 일환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서 예년과 같은 국가경제의 총체적 위기는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인 경제구조의 개혁보다는 세계 경기 둔화와 같은 간접적인 요소에 의해 인플레이션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칠레 인플레이션 변동 추이

연도	월	물가지수	월간 증감률	연간 증감률
2004	12월	81.45	-0.4	2.4
2005	12월	84.434	-0.3	3.7
2006	12월	86.602	0.1	2.6
2007	12월	93.377	0.5	7.8
2008	12월	100.00	-1.2	7.1
2009	1월	99.24	-0.8	6.3
	2월	98.88	-0.4	5.5
	3월	99.26	0.4	5.0
	4월	99.11	-0.2	4.5
	5월	98.86	-0.3	3.0
	6월	99.20	0.3	1.9
	7월	98.77	-0.4	0.3
	8월	98.41	-0.4	-1.0

자료: 칠레 통계청

라. 실업률 상승

칠레 정부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8년 칠레의 실업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08년 4/4분기 세계경기침체로 인한 구리가격 하락은 칠레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쳐 광산부문과 건설 부문에서 대규모 해고사태에 일조했다. 이 때문에 실업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08년 4/4분기중 광산부문에서만 1만4천명이 해고되었으며 광산회사인 BHP 사는 2009년 1월 2천명을 신규로 해고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의 침체와 이로 인한 칠레의 경기부진으로 2009년에도 고용인원 축소가 예상되어 당분간 고실업 상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09년 3월 기준 칠레 통계청이 발표한 실업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실업률은 9.2%를 기록하였으며 지난 2월에 비해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칠레 정부는 고용창출 확대 및 기업들의 투자심리 자극을 위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칠레 주요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광산업, 전력, 유통업계의 주요 기업들의 고용확대에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칠레 실업률 현황

(단위: %)

기간	연도	전체실업률
1~3월	2008	7.6
12~2월	2009	8.5
1~3월	2009	9.2
4~6월	2009	10.7
5~7월	2009	10.8

주: 기간별 실업률은 3개월 평균 실업률임

자료: 칠레통계청

칠레 연령별 실업률 현황

(단위: %)

기간	연도	15-24	15-19	20-24	25-34	35-44	45-54	55-64	65 이상
1분기	2009	21.0	26.0	19.3	11.7	6.8	6.1	4.5	2.6
2분기	2009	25.0	32.9	22.8	12.6	8.9	6.8	6.3	3.1

주: 2009년 9월 입수 가능한 최신 자료, 3분기 수치는 10월 중 발표 예정

자료: 칠레통계청

칠레 전체 실업률뿐만 아니라 개발지역과 미개발지역 간의 실업률 격차도 심각한 상황으로 북부 15지역의 경우 실업률이 12.2%, 발파라이소를 비롯한 제5지역과 제9지역의 실업률이 1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별 실업률 차이는 인프라 개발 및 산업 개발이 오랫동안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칠레 정부는 최근 국토 균형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계획 및 실행하고 있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한-칠레 FTA 5주년 투자진출확대 필요

FTA 체결 이후 양국 간 인지도 상승 및 상품교역 규모 측면에서의 성과는 있었으나 직접 투자, 자본투자 등의 분야에서는 경쟁국에 비해 현저히 뒤쳐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칠레는 세계 최대의 구리자원 보유국이자 국제구리가 상승에 따른 막대한 이익금을 활용한 국가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자원개발협력은 물론 건설, 인프라 구축 등 각종 현대화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또한 전력, 수도, 가스 등 모든 분야가 100% 민영화됨에 따라 경쟁력을 갖춘 외국기업의 진출이 가능하며 도로, 항만 등 사회 간접자본 또한 100% BOT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한국기업의 Operator로써의 참여가 가능한 상황이다.

경쟁국인 일본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칠레 광업 분야에 꾸준히 투자하여 일부 광산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지 광산업체들과의 네트워킹이 잘 이루어져 있다. 투자 진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국도 Minmetal의 대규모 장기투자로 칠레 광산업계에 큰 손으로 부상하는 등 칠레 광산업계에서의 일본, 중국의 위상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 업체에 귀감이 될 만한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기업의 경우 현지 광산, 전력 이외에 도로, 항만 등의 건설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정부의 프로젝트 발주에 대응할 수 있는 시장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동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장기적 투자계획 및 시행이 요구되고 있으며 단순 프로젝트 EPC 수주에서 벗어나 Operator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토대로 시장진출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한-중-일 FTA 시대, 전략 수정 필요

2006년 10월 중-칠레 FTA가 발효된 데 이어 일본도 2007년 9월부터 칠레와 FTA가 발효되는 등 아시아 국가 중 칠레의 첫 FTA 상대국으로서 우리나라가 누린 상대적 프리미엄이 약화되었다. 특히 일본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타이어 등은 우리나라의 대 칠레 주력 수출 품목과 유사하여 경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칠레 FTA 이후 중국 자동차의 칠레 시장 진출이 본격화 되면서 2008년 1분기 시장점유율이 5%까지 상승해 장기적으로 한국산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 한국 기업의 투자진출 희망

최근 심각한 전력난을 겪은 바 있는 칠레 정부에서는 향후 전력수급 안정화 및 친환경 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화력 및 수력발전의 경우 환경 오염 및 파괴를 유발해 국내 민간단체 및 여론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므로 칠레 정부는 향후 풍력, 태양열, 조력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점차 높여나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전력 부족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논의 중에 있으나 현 정부는 바첼렛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에는 동 사안에 대해 논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에서는 현재 동 발전 기술을 보유한 국가와의 협력을 위한 사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며 한국 또한 협력 대상국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현지 정부부처 및 기업들 또한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칠레 전력분야 진출을 희망하고 있으며 발전소 건설 이외에 기술이전 및 합작투자 형식을 통한 칠레 내 한국 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II. 경제

1.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거시경제 지표

연도	2006	2007	2008	2009(예상)
GDP(US\$백만)	145,205	152,000	156,808	135,773
GDP증가율(%)	4.6	4.7	3.2	-1.2
1인당GDP(US\$)	8,941	9,881	10,123	7,994
물가상승률(%)	2.6	4.4	8.7	1.9
물가지수	86.60	93.38	100	98.97
연평균실업률(%)	7.8	7.0	7.8	10.3
고용(천명)	6,272	6,448	6,601	6,498
수출(US\$백만)	57,727	66,651	65,102	47,540
수입(US\$백만)	35,974	46,201	60,419	36,084
외환보유고(US\$억)	194	169	231	252
외채(US\$억)	492	586	611	605
이자율(%) (정책금리, 12월 기준)	5.02	5.31	7.10	3.21
달러당환율(페소)	530.7	495.8	629.1	542.5
국제구리가격	3.05	3.23	3.15	2.09

자료: 칠레 산티아고 상공회의소, IMF, EIU 전망치

나. 주요 경제정책

칠레의 경제 정책은 적극적인 시장 개방을 통한 자유주의 시장 경제 질서 존중이라는 큰 틀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균형발전 및 차세대 산업 개발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위해 칠레 정부는 성장잠재력 강화 및 국토 전반의 고른 발전을 위한 각종 인프라 건설 및 확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 정권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또한 확대하고 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국제 금융위기 및 경제침체와 관련한 대응책으로 2009년 1월 GDP의 2.8%에 해당되는 4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칠레는 구리가격이 높은 시기에 조성한 경제안정화기금 27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 다른 중남미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 재정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동 기금을 활용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경기부양을 위한 패키지 내에 포함된 내용은 주로 중소기업 금융지원, 빈곤층 생활 안정 자금 지원 및 각종 기업관련 세금 면제혜택 등이다. Codelco를 비롯한 국영기업 및 국책사업 담당 부처에 대한 자금 지원 또한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기업경영환경 개선 및 기술혁신 분야 장려 등을 골자로 하는 Chile Emprende Contigo 캠페인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조세제도 단순화, 법인세 체납 이자 감면,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 개폐업 절차 간소화, 정부 구매 대금 결제 기간 단축 등의 기업환경 개선안과 I+D(Innovation & Development) 분야 민간 투자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신기술 도입 인센티브 지원 등 기술혁신 장려 정책 등으로 구성된다.

다. 2009년도 칠레 경제현황

1) GDP 마이너스 성장 예상

당초 칠레 경제기관 및 전문가들은 2009년 경제성장률을 3%선으로 예측하였으나 2008년 4/4분기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구리가격이 55% 이상 하락하고 폐소화도 35% 평가절하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현재 칠레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2009년도 GDP 성장률은 1% 수준으로 IMF, EIU에서 예상한 -0.8%와는 차이가 있으며 이는 세계 경제가 3분기부터 회복세를 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국제구리가격 상승 및 환율 안정으로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는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칠레 주요기업의 2009년 1/4분기 성적은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구리광산업체인 Codelco의 경우 2008년 1분기 대비 -95%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칠레 주요산업 중 하나인 유통업도 마찬가지로 Falabella, Cencosud, Sodimac 등 칠레 대표 유통기업을 중심으로 수익률이 두 자리 수 감소세를 보였다. 2008년 칠레 경제의 원동력 중 하나였던 건설분야 역시 최대 93%의 수익률 감소(Salfa Corp)를 기록하였다.

2) 노동시장 실업률 지속 증가, 경제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칠레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실업률은 금번 국제금융위기 이후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 정부의 고용창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09년 1분기 칠레 실업률은 9.2%를 기록, 전년동기대비 1.6% 상승하였으며 일자리 또한 약 30,000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분야별로는 전력부문이 8.4% 감소하여 최대 감소율을 기록하였으며 그 뒤로 농업, 건설, 유통업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칠레 전문가들은 연중 실업률이 최대 12%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총 1백만 명의 실직자를 양산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는 칠레 기업들의 비용절감을 위한 고용 축소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며 국제경기침체와 더불어 겨울철 자연적인 농업 고용 감소가 겹치면서 실업률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3) 교역

2009년 칠레 교역은 규모 및 금액 면에서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발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구리 국제가격 하락, 건설용 목재 수출 감소, 양식연어 수출 감소 등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 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광물자원 수요 회복 및 국제 거래가격 상승은 칠레 수출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수입의 경우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최대 수입품목이었던 디젤유의 전체 수입액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조만간 천연가스 공급이 정상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디젤유 수입 수요 또한 감소세를 탈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자동차, 휴대폰 등 소비재 수입이 뒤를 잇고 있으나 2008년 10월 이후 수입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기준 칠레의 5위 수입국이며 주로 디젤류, 자동차, 전자제품 등을 수출하고 있고, 2007년 FTA가 발효된 일본의 경우 6위 수입국으로 전체 수입시장 점유율 4.68%를 기록하고 있다. 2009년 1분기 우리나라의 대 칠레 수출은 약 49%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51%감소하여 칠레 의 10대 교역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품목별로는 디젤이 66% 감소하였으며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가 각각 70%와 40% 감소를 기록 주요 수출품 위주의 감소세가 뚜렷하였다.

4) 환율

2009년 1월 600 페소를 상회하였던 칠레 페소화의 미화 1불당 환율은 2009년 9월 22일 기준 544.50 페소로 칠레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에 따라 다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라. 2009 년도 칠레 경제 여건

2009년에는 주력 수출품인 구리 등의 원자재가 약세 현상이 지속되어 칠레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제 유가안정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감소는 에너지 수입국인 칠레 경제에 다소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효과를 줄 것이다. 전반적인 경제여건은 2008년에 비해 나빠질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최대 수출품인 구리, 몰리브덴 등의 국제 수요 및 거래 가격 상승이 더디게 진행될 경우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또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미국, 유럽 지역의 경기회복세에 따라 2009년 연간 경제 성장률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 된다.

2. 주요 산업 동향

칠레는 주변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다르게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산업발전이 이루어져왔으며 대부분의 소비재를 수입에 의존해왔다. 또한 칠레는 세계 구리 생산 1위 국가로, 전통적으로 광업의 비중이 높으며, 2008년 상반기까지 국제 구리가 상승에 따른 경기 호조로 사무실, 주택 등 건축물을 비롯하여 도로 신설·개선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다음은 각 산업분야가 칠레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단, 아래 GDP 구성은 해당 산업 종사자의 수입 총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각 산업이 칠레 경제에서 차지하는 정확한 비중을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칠레GDP구성

순 위	분 야	비 중
1	금융업	17.81
2	제조업	16.73
3	일반서비스업	11.50
4	상업·호텔·식당	11.12
5	건설	7.92
6	교통, 운송업	7.73
7	광업	7.13
8	부동산	5.76
9	공공행정	5.05
10	농림축산업	3.94
11	통신	2.99
12	전기·가스·수도	1.87
13	어업	1.25

주: 2008년 기준

자료: 칠레중앙은행

가. 광업

광업이 칠레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 정도에 불과하다. 광산업에서 파생되는 전력, 수도, 제조, 운송업 등 연관산업에 대한 수요를 고려할 경우, 광업은 칠레 전체 산업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부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산업이 광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칠레 경제의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수요감소, 가격하락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국제구리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광산기업들은 일제히 생산량을 축소하였으며 이는 바로 전력수요 감소로 이어져 전력기업들의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계획이 연기되는 사례가 있었다.

칠레 광산기업 및 외국인 투자자본은 구리 이외의 각종 매장광물 개발 프로젝트 진행을 이어가고 있으며 신규광물자원 확보 및 미래 수요증가에 대비한 생산능력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광산업 및 관련 산업의 비중은 지속 상승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농림축산업

칠레는 당도 높은 과일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높은 일조량, 북반구 선진국과의 계절적 차이,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매년 과일 수출이 증가하여 농가소득을 높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출선 다변화, 수출품목 다양화를 통해 신규 수출제품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최근 전략적인 농업기술개발을 통해 농업선진국으로의 성장을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칠레 정부는 세계 주요 식품 전시회 국가관 참가, 칠레 국가브랜드 및 이미지 메이킹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임업자원의 경우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칠레의 전략 산업으로서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조림 및 목재가공업이 발달하였다. 대표적인 칠레 목재수출은 원목 이외에 펄프, 종이 등 다양하며 CMPC, Arauco 등의 기업이 전체 수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 수산업

칠레 수산업은 국가 총 수출의 약 10%를 담당하는 주요 산업으로 연어류 양식 세계 2위, 조업 세계 3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비중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2008년 항생제 투여를 시작으로 ISA 바이러스 확산 등 악재가 겹치면서 현재 칠레 수산업은 큰 위기를 맞고 있으며 칠레 정부는 연어양식업 회생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 유통업

칠레의 유통시장은 크게 슈퍼마켓(하이퍼 마켓, 중소형 슈퍼마켓), 백화점, 전문점(홈 센터, 약국, 안경점 등), 대형 쇼핑몰 등 4개 형태로 발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시장에 참여 중인 기업들은 활동 영역을 특정 유통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까지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고 있다.

칠레 시장은 전통적으로 현지 토착기업의 세력이 막강해 Sears, JC Penny, Home Depot, Royal Ahold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통 체인점들이 모두 진출에 실패하였으며, 외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Carrefour가 슈퍼마켓 시장 2.5%를 유지하며 한때 약진했으나 결국 칠레 대형 유통업체인 D&S 그룹에 합병되었다.

주요 유통업체로는 백화점 체인인 Falabella와 Ripley, Almacenes Paris 등 3대 백화점 체인과 슈퍼마켓 등의 유통체인을 거느린 Cencosud, D&S 등이 있으며, 이들 업체는 대형 복합 쇼핑 단지에 함께 입주하거나 독립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들 토종 유통업체의 중남미 인근국 진출이 활발하다.

참고로 현재 칠레 유통시장은 Falabella, Cencosud, D&S 등이 메이저 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 및 체인망 확대에서 경쟁관계에 있다. 참고로 2009년 초 D&S는 세계 최대 유통체인인 미국 Walmart에 인수되었다.

마. 전력산업

칠레는 1992년 이후 매년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광산업의 생산량 확대에 따라 수요가 급증해왔다. 2008년 기준 칠레의 총 발전량은 56,678 Gwh정도로 전년도 대비 약 0.7% 증가하였다.

예전에 칠레 주요 전력 공급원은 천연가스였다. 칠레 전력의 80% 이상에 아르헨티나 가스가 사용되었으며, 아르헨티나가 자체 공급 물량 부족을 이유로 수시로 대 칠레 가스 공급을 일방적으로 감축하고 있어서 칠레 에너지 불안의 근원적인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로 인해 2008년 전력부족 문제가 심화되었으며 대부분의 발전소가 수급이 비교적 안정적인 디젤발전으로 전환함에 디젤 수입 비중이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칠레 정부는 전력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체 에너지 공급원 발굴을 모색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등 신규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통적으로 배타적인 입장을 보여 왔으며, 바첼렛 정부도 원자력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증가하고 있는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자력 발전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칠레 에너지위원회는 2007년 3월에 원자력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일부 학계·정계의 해외 시설 견학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전력 부문은 대부분 민영화됐으며 정부 측이 거의 개입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특정 업체의 횡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개 업체가 발전, 송전, 배전 중 2개 분야에 대해서만 투자할 수 있도록 방침이 정해졌다. 따라서 1개 업체가 발전/송전/배전 3가지 분야를 망라할 수 없는 구조이다.

칠레는 크게 4개의 전력공급시스템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고 있으며, 북부 SING와 중부 SIC 시스템 2개가 대부분의 산업,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북부 SING 시스템은 칠레 인구의 약 5% 정도의 수요를 충당하고 있어 일반 가정에 대한 전력 공급보다는 북부지역에 밀집한 광업지대에 대한 전력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중앙·남부는 SIC 시스템으로 공급되며, 칠레 전체 인구의 약 93% 정도의 수요를 충당(일반 가정 및 산업)하고 있다.

바. 신재생에너지 분야

칠레는 전통적으로 전력, 통신, 수도 등 모든 사회 기반시설이 민간기업 주도로 개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정부가 직접 발주하는 프로젝트는 도로 및 공항, 항만 등 공공시설 일부에 국한되어 있다. 도로, 공항, 항만 등도 발주처는 정부이나 모든 프로젝트가 100% 민간기업에 의해 건설, 운영되는 BOT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09년 4월 칠레 전력위원회(www.cne.cl)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2건의 발주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세계 최대 일조량을 자랑하는 칠레 북부 San Pedro de Atacama 지역에 각각 0.5MW와 10MW 규모의 태양열 발전 형식을 채택할 예정이다.

하이에 브라보(Jaime Bravo) 칠레 전력위원회 신재생 에너지부장에 따르면 동 프로젝트는 칠레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분야 투자 자극을 위해 진행하는 Prototype형식의 프로젝트이다. 이는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으로 보았다.

동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해 장기 PPA(전력공급계약) 체결을 지원할 예정이며 공급계약가격은 칠레 정부에서 매년 4월과 9월에 조정하는 전력기준가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칠레 전력산업은 매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부족한 전력생산량으로 인해 향후 프로젝트 시장도 매우 밝은 편이다. 그러나 현재 칠레 전력의 대부분이 화력과 수력 두 방식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은 문제이다.

또한 양 방식 모두 자연환경 훼손 및 공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장기적으로 공해 최소화 전략을 강화할 방침이다. 두 방식의 경우 자원수급 문제 및 자연적 요인으로 인한 가뭄 발생 시 전력생산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음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전력생산구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도 칠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칠레는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개방에 의한 자유무역정책을 추진한 이후 WTO, APEC 등 다자간 무역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 확대를 통해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다.

1997년 캐나다와의 FTA를 시작으로 2009년 현재까지 49개국과 FTA를 체결했으며, 중남미 인근 10개국과도 경제 보완 협정을 체결하여 평균 수입관세율이 2% 미만이다.

2004년 4월 아시아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와 최초로 FTA가 발효되었으며, 2006년 10월 1일부로 중국, 11월부로 P4(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회원국인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과의 협정도 발효되었다. 일본과는 2007년 3월 말에 FTA를 체결하였으며, 약 6 개월만인 9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현재 추가적으로 말레이시아, 터키, 태국, 베트남 등과의 FTA 협상이 진행 중이다.

칠레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현황(총 49개국과 체결)

체결국가		발효시기(체결 시기)
캐나다		1997.7.5(1996.12.5)
멕시코		1999.8.1(1998.4.17)
중미5개국	코스타리카	2002.2.14(1999.10.18)
	엘살바도르	2002.6.3(1999.10.18)
	니카라과	양자협상 중(1999.10.18) *
	온두라스	2008.8.28(1999.10.18) *
	과테말라	국회비준 중(1999.10.18) *
EU 27개국		2003.2.1(2002.11.18)
미국		2004.1.1(2003.6.6)
EFTA 4개국		2004.12.1(2003.6.26)
한국		2004.4.1(2003.2.15)
P4 3개국		2006.11.8(2005.7.18)
중국		2006.10.1(2005.11.18)
파나마		미정(2006.6.27)
페루		2009.3.1(2006.8.22)
콜롬비아		국회비준 중(2006.11.27)
일본		2007.9.1(2007.3.27)
호주		2008.7.30(2009.3.6)
말레이시아		양자 협상 중
태국		합동연구 완료
터키		협상 완료
베트남		협상 시작

주: * 중미 5국: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과테말라

* EFTA 4국: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 P4 3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루나이(나머지 1국은 칠레)

* EU 27개국: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스웨덴, 키프로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몰타,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칠레의 경제보완협정 체결현황

체결국가	발효일자(체결 시기)
베네수엘라	1993.7.1(1993.4.2)
에콰도르	1995.1.1(1994.12.20)
MERCOSUR(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1996.10.1(1996.7.25)
볼리비아	1993.7.7(1993.4.6)

칠레의 FTA 유사무역협정(부분적 자유무역협정) 체결현황

체결국가	발효일자(체결시기)
쿠바	2008.8.28(1999.12.20)
인도	2007.8.17(2006.3.8)

주: 경제보완협정(ACEs - Los Acuerdos de Complementacion Economica)은 자유 교역의 대상이 재화에 국한되는 데 반해, FTA는 서비스·투자 부문에 대한 자유교역까지를 포괄. 부분적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일정 물량의 재화에 대한 자유교역 가능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칠레 정부는 '99년부터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무역수지 흑자폭도 계속 확대되었으나 2008년 4/4분기 이후 구리가격이 급락하면서 무역수지 흑자폭이 2008년에는 대폭 감소 하였다. 칠레의 수출 역시 2008년 3/4분기까지는 높은 구리 국제가격에 힘입어 호조세를 보였으나 4/4분기 들어서는 대폭적으로 수출이 감소하였으며 2009년에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수입 역시 4/4분기 들어 국내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최근 6개년간 칠레 수출입 총괄

(단위: 미\$ 백만)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7
수출	20,140	30,901	39,536	55,884	65,787	69,579	26,630
수입	17,337	22,339	29,788	34,750	42,712	56,474	21,038
무역수지	2,803	8,562	9,748	21,134	23,075	13,105	5,592

자료: Nexislexis Chile

주: 2009년 9월 기준 최신자료

가. 수출동향

칠레의 수출은 2008년 전년 대비 5.8% 증가한 69,579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8년 3/4분기까지는 주력 수출품목인 구리, 올리브덴 등 광물 수출 외에 과일류, 와인, 유제품 등이 높은 수출증가세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증가세가 2008년 하반기 미 금융 위기로 인한 국제경기 악화에 따라 급격히 위축되었는데 2009년에도 이러한 수출부진세가 계속되고 있다.

칠레는 총 수출의 약 60%가 광물에 집중되어 있어 국제 광물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다 기타 주력 수출 품목도 연어, 목재, 펄프, 과일, 포도주 등 대부분 1차 상품에 한정되어 있어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및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2008 칠레의 연간 수출실적

(단위: 백만 달러)

	Hs Code	품 목	2007	2008	증가율(%)	수출 비중(%)
1	7403	정제동	20,417	20,966	2.69	30.13
2	2603	동광과 정광	13,475	12,865	-4.53	18.49
3	4703	목재펄프	2,346	2,625	11.89	3.77
4	2613	올리브덴	3,086	2,529	-18.05	3.64
5	7402	정제하지 않은 동	2,900	2,472	-14.76	3.55
6	0016	연료	872	1,762	102.06	2.53
7	0304	어류	1529	1534	0.33	2.21
8	2204	포도주	1,256	1,377	9.63	1.98
9	0806	포도	861	1,114	29.38	1.6
10	0303	어류	825	947	14.79	1.36
11		기타	18,220	21,388	17.39	30.74
총수출액			65,787	69,579	5.76	100

자료: LexisNexis

2009년 2분기 칠레 수출실적

HS	품목	연도별 수출액			연도별 점유율			증감률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Total		32,739.04	36,992.76	22,222.84	100	100	100	-39.93
74	구리	12,504.12	13,362.43	6,971.24	38.2	36.12	31.37	-47.83
26	광물	8,062.71	8,889.70	3,551.86	24.6	24.03	15.98	-60.05
08	과일류	1,815.83	2,185.11	1,999.63	5.55	5.91	9	-8.49
03	수산물	1,430.16	1,381.22	1,381.53	4.37	3.73	6.22	0.02
47	펄프류	1,115.84	1,342.72	905.95	3.41	3.63	4.08	-32.53
44	목재	966.38	1,031.15	737.78	2.95	2.79	3.32	-28.45

주1) 2009년 9월 기준 입수 가능한 최신자료임.

주2) 칠레 현지 통계는 7월까지의 수치를 발표하였으나 HS 2자리 기준 검색이 불가능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WTA 자료를 활용함.

자료: WTA

칠레의 10대 수출대상국 (2009년 2분기 기준)

(단위: 백만 달러)

No.	국가	국가별 수출액			국가별 점유율			증감률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09/08
Total		32,739.04	36,992.76	22,222.84	100	100	100	-39.93
1	중국	5,052.04	5,309.18	4,580.49	15.43	14.35	20.61	-13.73
2	미국	4,454.43	4,172.69	3,072.41	13.61	11.28	13.83	-26.37
3	일본	3,349.27	3,786.50	1,934.11	10.23	10.24	8.7	-48.92
4	한국	1,978.57	2,099.96	1,225.70	6.04	5.68	5.52	-41.63
5	브라질	1,570.94	2,012.03	1,068.36	4.8	5.44	4.81	-46.9
6	네덜란드	2,160.25	2,391.99	894.64	6.6	6.47	4.03	-62.6
7	멕시코	1,224.33	1,173.10	683.66	3.74	3.17	3.08	-41.72
8	독일	834.69	1,034.82	591.05	2.55	2.8	2.66	-42.88
9	프랑스	1,230.78	1,268.69	573.39	3.76	3.43	2.58	-54.8
10	페루	457.38	677.37	540.38	1.4	1.83	2.43	-20.22

주1) 2009년 9월 기준 입수 가능한 최신자료임.

주2) 칠레 현지 통계는 7월까지의 수치를 발표하였으나 HS 2자리 기준 검색이 불가능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WTA 자료를 활용함.

자료: WTA

나. 수입 동향

중앙은행이 집계한 2008년 수입은 전년 대비 32.2% 증가한 56,474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부문별로는 중간재가 34.4%, 자본재가 31.2%, 소비재가 19.3% 수입 증가를 보였으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중간재 수입에서는 석유 수입이 7,175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4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상반기 국제원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구리를 비롯한 광물생산에 필요한 전력생산수요가 급증하면서 발전용 디젤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9년의 경우 국제 원유가 안정 및 세계 경제침체에 따른 광물수요 감소에 따라 예년과 같은 폭발적인 수요증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칠레의 연도 및 제품유형별 수입 실적

(단위: US\$ 백만)

	2005	2006	2007	2008	2009
소비재	6,435	7,566	9,225	11,043	4,594
중간재	17,873	21,471	26,956	36,233	12,807
(석유)	3,779	4,874	5,018	7,175	2,108
(기타연료)	2,256	2,979	5,366	7,864	4,536
자본재	5,763	6,065	7,048	9,246	3,873
총계(기타포함)	32,051	37,555	43,990	57,609	25,122

주1) 2009년 9월 기준 입수가 가능 최신자료

주2) 중앙은행 통계는 상품 및 자본재, 자유무역지대를 통과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통계로 관세청 통계와 차이가 있음.

자료: 칠레중앙은행

2009년 2분기 칠레 수입실적

(단위: 백만불, %)

HS	품목	연도별 수입액			수입점유율			증감률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Total		19,250.88	27,766.26	17,373.69	100	100	100	-37.43
27	디젤유	4,769.70	8,865.16	4,042.27	24.78	31.93	23.27	-54.4
84	기계류	2,653.37	3,206.86	2,731.38	13.78	11.55	15.72	-14.83
85	전자기기	1,719.76	2,207.48	1,796.00	8.93	7.95	10.34	-18.64
87	자동차	1,865.82	2,679.95	1,221.10	9.69	9.65	7.03	-54.44
39	플라스틱	729.56	862.82	561.68	3.79	3.11	3.23	-34.9

주1) 2009년 9월 기준 입수 가능한 최신자료임.

주2) 칠레 현지 통계는 7월까지의 수치를 발표하였으나 HS 2자리 기준 검색이 불가능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WTA 자료를 활용함.

자료: WTA

칠레의 10대 수입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No.	국가	2007	2008	2009	점유율			증감율
					2007	2008	2009	09/08
Total		19,250.88	27,766.26	17,373.69	100	100	100	-37.43
1	미국	3,156.09	5,816.11	3,404.55	16.4	20.95	19.6	-41.46
2	중국	2,080.19	2,925.16	2,275.82	10.81	10.54	13.1	-22.2
3	아르헨	2,133.11	2,416.23	2,198.84	11.08	8.7	12.66	-9
4	브라질	2,116.92	2,406.65	1,212.97	11	8.67	6.98	-49.6
5	한국	1,222.88	1,725.72	868.06	6.35	6.22	5	-49.7
6	독일	717.09	852.86	688.79	3.73	3.07	3.97	-19.24
7	콜롬비아	352.46	902.74	666.66	1.83	3.25	3.84	-26.15
8	일본	643.69	1,260.41	581.93	3.34	4.54	3.35	-53.83
9	스페인	403.30	467.91	490.78	2.1	1.69	2.83	4.89
10	멕시코	634.36	884.62	457.87	3.3	3.19	2.64	-48.24

주: WTA 최신자료인 2009년 2분기 현재 칠레의 10대 수입대상국 현황임.

자료: WTA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2009년 3월 기준 우리나라는 칠레의 수출 및 수입부문 각각 4위와 5위에 위치해 있으며 구리를 비롯한 광물 원자재 수입으로 인해 무역거래에서는 전통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8년, 한-칠레 교역 수지 적자는 1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대 칠레 수입의 80% 이상이 원자재인 구리 및 광물자원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칠레와의 교역 적자는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칠레로부터 구리 및 기타광물, 메탄올, 포도주, 돼지고기 등 원자재를 수입하고 칠레에 자동차, 경유, 전자제품 등을 수출하는 상호 보완적 교역구조를 띠고 있다.

2008년 한-칠레 교역에서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한국의 대 칠레 경유수출 급증이었다. 이는 아르헨티나산 천연가스 공급 불안정으로 에너지를 겪고 있는 칠레에서 대체 에너지원으로 비상발전용 디젤 수요가 급증하여 우리나라의 대 칠레 주력 수출품목인 경유의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2009년 현재 국제 원유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올 8월 칠레 남부 대규모 천연가스 저장탱크가 완공 예정임에 따라 천연가스 수급 또한 정상화될 것으로 보여 2009년에는 전년대비 수입액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칠레 정부는 2009년 8월부터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한 칠레 중부지역의 제조업체 및 전력기업들에게 의무적으로 천연가스를 사용 하도록 할 예정임에 따라 예전과 같은 디젤수요 급증현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 수도권 지역 기업들은 지나치게 강압적인 조치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며 정부의 단계적 천연가스 사용확대 및 기타 점진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칠레 환경부는 천연가스 의무사용에서 한발 물러나 디젤 또는 기타 천연가스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디젤 사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제도를 완화한 상황이다.

2008년 우리나라의 대 칠레 승용차 수출은 약 525백만불에 달해 칠레 자동차 수입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였으며 실제 칠레 시장 내 신차 시장 점유율 29.3%를 기록했다. 또한 2009년부터 일본-칠레 FTA 발효에 따른 일본차의 경쟁력 제고에 따라 치열한 시장점유 경쟁이 예상되었으나, 한국산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09년 6월 기준 한국산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은 35.7%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칠레 수출입 총괄

(단위: 미\$ 백만)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6	
수출	1,151	1,566	3,115	3,032	873	-46.8
수입	2,279	3,813	4,184	4,127	1,375	-41.7
총 교역	3,430	5,379	7,299	7,158	2,248	-43.8
무역수지	-1,128	-2,247	-1,069	-1,096	-502	-30.1

자료: KOTIS

□ 주요 품목별 수출입 실적

한국의 대 칠레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불, %)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2008		2009.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3,032	-2.7	873	-46.8
1	1332	경유	1,408	-19	285	-58
2	7411	승용차	525	1.6	137	-62.2
3	7133	가열난방기	54	1,712.30	70	82.1
4	7412	화물자동차	119	-20.6	36	-53.8
5	6152	철구조물	18	244.5	33	290.3
6	2140	합성수지	138	11.9	27	-52.9
7	8121	무선전화기	54	-35.9	23	-31.3
8	8421	변압기	6	2,170.20	21	315.5
9	6141	철강관	14	111.5	18	72.5
10	8211	칼라TV	11	-51.9	17	411.1

주: 2009.2분기 기준

자료: KOTIS

한국의 대 칠레 주요 수입품목

(단위: 백만불, %)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2008		2009.6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4,127	-1.3	1,375	-41.7
1	6221	동과및스크랩	1,713	-8.2	660	-34.6
2	1130	동광	1,255	-1.5	199	-72.4
3	2511	펄프	267	17.6	119	-12.4
4	1160	아연광	129	117.6	70	13.6
5	221	가축육류	90	-25.1	56	-19.5
6	116	과실류	72	18.9	56	-16.5
7	1190	기타금속광물	227	23.3	51	-59.8
8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64	-63.6	37	146.7
9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55	39.3	26	2.3
10	419	기타어류	40	7.1	20	3.1

자료: KOTIS

□ 기타 참고자료

칠레의 주요 원산지별 신차시장 점유율

원산지	2007	2008	2009.6월
	%	%	%
한국	32.5%	29.2%	35.7%
일본	27.9%	25.1%	19.9%
중국	2.6%	7.4%	5.9%
아르헨	9.9%	6.0%	3.1%
인도	3.9%	4.6%	5.7%

자료: 칠레 자동차협회(ANAC)

한국의 포도주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미\$ 천)

구분	2006		2007		2008		2009.6월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총 계	88,607	100	150,364	100	166,512	100	54,561	-39.7
프랑스	32,705	36.9	59,141	39.3	65,730	39.5	17,787	-52.9
칠 레	15,376	17.4	25,496	17.0	29,713	17.8	11,361	-25.7
이탈리아	8,989	10.1	19,608	13.0	24,091	14.5	8,502	-32.6
미 국	12,482	14.1	16,756	11.1	16,247	9.7	5,845	-30.8
호 주	6,654	7.5	11,166	7.4	11,348	6.8	3,922	-31.5

자료: KOTIS

한국의 대 중남미 주요 국가별 수출

(단위: 미\$ 백만)

구분	2006		2007		2008		2009.6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 계	20,387	36.0	25,781	25.2	33,267	29.0	16,318	-26.3
멕시코	6,285	65.9	7,482	19.1	9,090	21.5	4,434	-30.9
파나마	2,227	37.2	3,145	41.2	6,464	105.5	3,152	5.2
브라질	3,063	27.1	3,487	13.8	5,926	69.9	2,810	-32.6
칠 레	1,566	36.1	3,115	98.9	3,031	-2.7	1,256	-42.6

주: 2009년 6월 기준

자료: KOTIS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 금지 품목

칠레는 미풍양속 저해물(음란물, 포르노), 독성 산업폐기물 등 기본 수준의 수입 금지 품목이 외에 중고자동차(중고오토바이 포함) 및 중고 또는 재생타이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중고자동차의 수입 금지의 이유는 환경 오염 방지이며, 구급차, 소방차, 사다리차, 청소차 등 공공 목적의 차량만 수입이 가능하다. 다만 Iquique 및 Punta Arenas 와 같은 자유무역지대에서 수입,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나. 수입 제한 품목

아래 표와 같은 특정품목의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 인증절차가 필요하다

품목	해당 기관
무기, 폭발물, 질식성 화학제품 등	Dirección Nacional de Movilización de las FF.AA.(국방부소속기관)
알콜, 알콜음료, 식물, 동물, 조류, 동식물 파생상품, 비료, 살충제 등	SAG(농업부소속)
식품, 유해물질, 의약품, 화장품, 환각제 등	Servicio de Salud
방사능물질, 방사능 유발 도구 및 장비	Comisión Chilena de Energía Nuclear
어업제품	Servicio Nacional de Pesca

다. 비관세 장벽

칠레는 자국 농업보호를 위하여 밀/밀가루, 설탕, 올리브오일(엑스트라버진)에 대하여 가격 밴드제를 유지하고 있다. 상기 품목이 수입될 경우 수입자 신고가격과 무관하게 정부에서 일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라. 수입쿼터

칠레는 설탕, 육류, 생선, 치즈, 염화칼륨, 기름 등의 일부 농수산물 품목을 민감 품목으로 분류, 수입 쿼터를 두고 있다. 품목별 쿼터량은 수입원산지에 따라 상이하며, 한국과는 수입 쿼터를 두고 있지 않다. 원산지별 품목별 쿼터는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aduana.cl> 메뉴 중 Tramitacion en la linea(Online Procedure)의 Consulta Cupos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4. 대한수입규제 동향

칠레 정부는 법으로 수입을 금지·제재하고 있는 품목 이 외에 원산지에 따라 별도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수입 시 한국산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규제를 당하는 일은 없다.

5. 관세제도

칠레는 2003년 1월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물품가액의 6%에 해당하는 단일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일부 품목 추가세금 부과)

칠레와 FTA 또는 경제보완협정 등의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수입된 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협정 내용에 준하는 관세율을 부과한다. 현재 칠레는 우리나라 포함 미국, EU, 중국, 일본 등 49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실질 수입관세율은 2% 미만이다.

우리 나라 제품의 경우 FTA 정식 발효 이후, HS 코드에 따라 개별적으로 0~13년까지 관세 철폐 기간이 적용되고 있다.

가. 관세부과 기준 및 산정방식

관세 부과 기준은 CIF 가격이며, CIF 가격에 기본 수입 관세(일반적으로 6%)와 부가가치세(19%)를 부과하고 있다.

□ 관세부과 예

- 수입품목의 CIF가격이 US\$ 1,000 이라고 할 때
 - 기본관세 6% = US\$ 60.00
 - 부가가치세 19% 부과=> $1,060 \times 0.19 = \text{US\$}201.40$
 - 총 부과 관세는 US\$ 201.40 (a + b)
 - * 참고로 부가가치세의 경우 현지 수입업자가 제품 수입 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추가세금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세금(sobre tasa)가 부과되고 있다.

- 특별소비세
 - 금, 백금 및 상아로 만든 제품, 보석, 천연 또는 합성 귀석, 고급 양탄자 및 직물, 고급 가죽, 캐비아 통조림 및 그 대용품, 공기총 또는 압축가스총
 - 관세 산정 시 기본관세에 15%를 추가 부과
- 주세
 - 알코올, 무 알코올 음료에 기본 관세, 부가가치세 외 추가세 부과
 - 미네랄 음료, 인공 음료(13%)
 - 포도주, 샴페인, 맥주(15%)
 - 술, 피스코, 위스키, 소주, 증류주 등(27%)
- 담배세 : 국세청이 공식판매가(CIF가격 아님)에 세금을 추가
 - 시가(51%), 궤련(60.4%), 손으로 만든 담배(57.9%)
 - 담배세 = 공식판매가격 x 담배세율(51% / 60.4% / 57.9%)
 - 승용차 사치세: 2007년부터 철폐

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칠레가 모든 수입품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6%의 단일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약 40여 개국과 체결한 양자무역협정으로 실질적인 평균 수입관세율은 1.9% 미만에 그치고 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도 FTA 체결효과에 힘입어 0.5% 정도에 불과하다.

칠레와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 제품에는 6%의 관세가 부과되나 협정 체결국의 경우 협정 내용에 따라서 관세가 0%이거나 매년 점진적으로 철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세율표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칠레의 관세율을 조회하는 방법은 KOTRA 무역자료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세율표 조회 또는 KOTRA 산티아고 KBC 홈페이지 Q&A란에 수출희망 제품 HS Code를 제시할 경우 안내를 받을 수 있다.

6. 주요인증제도

☐ 전기전자제품 인증

칠레에서 전기전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SEC(전기연료관리국: Superintendencia de Electricidad y Combustibles)가 규정하고 있는 안전검사인증을 통과하여야 하나 모든 전기 전자 제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인증이 필요한 주요 품목은 가전제품, 난로, 온수기 등 가정용 전기제품을 비롯하여 전선, 전기 콘택트, 스위치, 전기회로, 조명기구, 전구, 가스 및 기타 연료를 사용하는 제품 등이며, 인증 대상 품목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제품 수출 시 바이어를 통해 해당 품목의 인증이 필요한지 여부를 체크해야 하며, SEC 인증 품목군을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스페인어)

1) 인증제품리스트 확인

각종 해외 안전 인증을 보유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SEC의 인증 필요 품목군에 해당할 경우 지정한 인증기관을 통해 칠레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현지 인증기관은 CAM, Centrigas 등 SEC 이 지정해 놓은 10여 개의 업체가 대행하고 있다.

2) 각 품목별 인증기관 확인

최근에는 칠레의 인증 기관과 제휴관계에 있는 해외 인증 기관을 통해서 현지에서 인증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수입업체를 통해 국내에 칠레 인증기관의 제휴 기관이 있는지 파악해 수출 전에 인증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해당 품목이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이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인증기관에서 인증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경우, 수입업체에게 인증 업무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인증제휴기관

참고로 UL(미국), VDE(독일), NF(프랑스), IMQ(이탈리아), KEMA-KEUR(네덜란드), OVE(오스트리아), SEV(스위스), BEAB(영국), CSA(캐나다), JIS (일본), DEMKO(덴마크), SEMKO(스웨덴), NEMKO(노르웨이), CEBEC(벨기에), SABS(남아프리카공화국), AENOR (스페인) 등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제품은 인증 절차가 다소 간소하다.

7. 지적재산권

칠레는 현재 미국 정부가 지정한 지적재산권 우선감찰대상국가(Priority Watch List)로 분류되어 있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및 각종 지적 재산에 해당하는 제품의 복제판이 지나치게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판결 및 처벌 기준이 미미 하고 정부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칠레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칠레 정부는 지적재산권의 중요 성에 대한 홍보 및 불법복제품 판매점 또는 노점상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영화, 드라마, 게임 소프트웨어 등을 중심으로 복제품 전문 거래시장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가. 지적재산권

기술사용계약은 중앙은행에 등록해야 하며, 기술사용료 지급조항은 중앙은행 외환거래 위원회의 심의통과가 필요하다. 이외에 특별한 규제는 없으며 외국 모기업 및 칠레 소재 자회사간의 계약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기술 사용 계약을 허용한다.

기술사용료는 기술사용계약으로 발생한 순 매출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액수에 대해 상표권 사용의 경우 1%, 상표권 및 제조공정권 사용의 경우 3%, 특허권 및 Know-How 사용의 경우 5%까지 인정한다. 외국인의 기술 이전 수입에 대해 30%의 Royalty Tax, 국외제공 특정 기술 서비스에는 20% 세율을 적용한다.

나. 저작권

칠레에 거주하는 칠레인 혹은 외국인 저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 간 보호된다. 칠레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저자의 경우에는 칠레가 가입한 국제협약 회원국(Universal Convention on Author's Rights, Interamerican Convention on author's rights)에 한해 보호된다.

다. 상표권

등록된 날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상표권 보유자는 만기 30일 전에 갱신해야 한다. 칠레 산업 재산권부(Department of Industrial Property/서어: Departamento de Propiedad Industrial) 에는 연간 35,000건의 신청을 받으며, 이 중 2만여 건이 등록된다.

라. 특허권

15년간 보호되며, 갱신되지 않는다. 매년 1,500여 건이 신청되며 이 중 500여 건이 등록된다. 의약품의 경우 20년으로 알려져 있다.

마. 산업디자인 및 유틸리티 모델권

10년간 보호되며 갱신되지 않는다.

바.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자에게 권리를 부여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수정, 완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권리 보유자의 사전 동의를 취득해야 한다.

사. 등록절차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관청에 등록 신청해야 한다.

- 등록기관: Departamento de Derechos Intelectuales
 - 주 소: San Isidro 247, 2° piso, Santiago Centro, Chile
 - 연 락 처: (562)2222663 - 6346497, Fax: (562) 6355-2268
 - 근무시간: 월~금 09:00~14:00
 - URL: www.dibam.cl
 - 비용
 - 건축, 엔지니어링, 컴퓨터 프로그램 등: 0.35UTM (UTM은 과세단위가 되는 환율로, 매월 변동. 2007년 6월 기준 1UTM=32,529페소=약 US\$ 62)
 - 비디오, 영화 등 영상물: 0.4UTM
 - 기타 등록: 0.1UTM

상표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관청에 등록 신청해야 한다. (인터넷 신청 가능)

- 등록기관: Departamento de Propiedad Industrial(경제부 산하)
 - 주 소: Moneda N° 970, piso 10, Santiago Centro
 - 연 락 처: (562)688-3468, Fax: (562) 688-3484
 - 근무시간: 월~금, 09:00~14:00
 - URL: www.dpi.cl
 - 비용: 약 25,000페소 + 2UTM 내외

신청하면 일단 관보에 30일 혹은 60일 간 게재한다. 만약 이의가 없을 경우 권리가 부여된다. 이의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 간의 주장과 증거에 의해 결정된다. 통상 상표 등록 시에는 이의가 없을 경우 6개월이 소요되며, 특허권의 경우 3개월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기간은 다른 선진국에서보다도 짧은 기간이다.

아. 지적재산권 불법 복사 현황

최근 들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지적재산권 침해는 여전히 일반적 관행이 되어 있다. 가장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는 분야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유통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65% 가량이 불법 복제품이다.

영화, 음반의 경우 불법 복제품 비중이 40% 이상이며, 연간 불법복제품 시장규모가 1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티아고 시내 곳곳의 불법 DVD 노점에서 심지어 한국 영화까지 판매되고 있으며, 일부 불법판매 DVD는 내용물이 들어 있지 않은 공CD인 경우도 있다.

칠레시장의 불법복제품 비중 및 금액

품목	2006		2007		2008	
	손실액 (US\$백만)	불법 복제비율(%)	손실액 (US\$백만)	불법 복제비율(%)	손실액 (US\$백만)	불법 복제비율(%)
음반	29.6	44	29.6	44	21.0	66
사무용 S/W	65.0	64	98.0	67	109	66
영상물	N.A	N.A	N.A	N.A	N.A	N.A
오락 S/W	N.A	20	N.A	N.A	N.A	N.A
서적	1.0	N.A	N.A	N.A	N.A	N.A
합계	95.6	-	127.6		130	

자료: IIPA

9) 관련기관

Department of Industrial Property 에서 상표권,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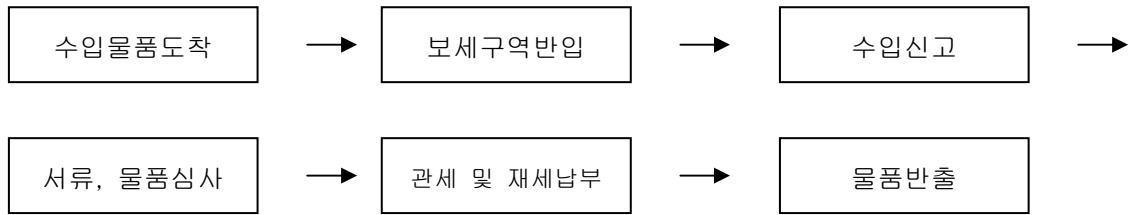
○ 홈페이지: <http://www.dpi.cl>

8. 통관/운송

가. 통관 절차

칠레 세관은 인보이스 금액 US\$500 이 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문 통관사를 통해 수입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물품 도착 후 물품반출까지는 최소 이틀 정도 소요된다. 수입 물품은 세관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며, 반출 시일이 늦어질수록 창고 보관료가 누적 적용된다. 90일 이내 반출치 않으면 수입 물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관세는 무역협정 미체결국의 경우 품목, 원산지에 관계없이 일괄 6%가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는 19%이다.



나. 통관 시 필요서류

수입신고 시에는 수입신고서(Declaracion de Ingreso)와 함께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 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보험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부 사전 수입승인품목의 경우에는 관할기관의 수입승인서도 제출한다.

- FTA 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있다.

다. 칠레의 주요항구

칠레의 최대 항구는 San Antonio 항구로 연간 약1,200만 톤의 화물을 운송하고 있으며 19개 선박회사가 운영되고 있다. 인근 Valparaiso는 두 번째 규모의 항구로 연간 600만 톤의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 나머지 항구들은 규모와 물동량이 매우 적은 편이다.

지역별 주요 항구

지역	항구	홈페이지	컨테이너비	기준일
I	Puerto de Arica	www.puertoarica.cl	N/A	N/A
IV	Coquimbo	www.puertocoquimbo.cl	N/A	N/A
V	San Antonio Valparaiso	www.saiport.cl http://www.portvalparaiso.cl	요금표(서어) 요금표(서어)	2008 2007
VIII	Talcahuano	http://www.ptotalsve.cl	N/A	N/A
X	Puerto Montt	www.empormontt.cl	요금표(서어)	2007
XII	Punta Arenas	www.epa.co.cl	N/A	N/A

항구별 컨테이너 비용과 창고비, 부대비용 등은 항구별로 상이하고 화물 종류에 따라 책정 기준이 다양하므로 현지 진출 포워딩사나 운송회사를 통해 확인을 권한다.

한국-칠레 간 해상 운송기간은 약 40일 정도 소요되나, 영세업체를 통해 LCL로 물품을 발송할 경우 컨테이너가 다 찰 때까지 업체에서 컨테이너를 선적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 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선적일을 확인해야 한다.

칠레 주재 한국 포워딩사

업체명	태웅로지스틱스(TGL S.A.)
주소	Av. Luis Thayer Ojeda 166, Oficina 802, Providencia, Santiago, Chile
전화	(56-2)233-4143
팩스	(56-2)233-5097
홈페이지	www.e-tgl.com
이메일	isabelkim@e-tgl.com

라. 현지 주요 운송업체

해상 운송업체

업체명	A.J. BROOM Y CIA.(육상 운송도 함)
주소	Mac Iver 225, Piso 10, Santiago, Chile
전화	(56-2) 549-8400
팩스	(56-2) 633-5684
홈페이지	www.ajbroom.cl
e-메일	commercial@ajbroom.cl

업체명	CCNI
주소	Av. Andrés Bello 2687, Piso 16 y 17, Vitacura, Santiago, Chile
전화	(56-2) 339-1300
팩스	(56-2) 203-9060
홈페이지	www.ccni.cl
e-메일	info@ccni.cl

업체명	CSAV
주소	Hendaya 60, Piso 11, Las Condes, Santiago, Chile
전화	(56-2) 330-7000
팩스	(56-2) 330-7700
홈페이지	www.csav.com

업체명	MARITIMA VALPARAISO
주소	Av. Nueva Tajamar 481, Of. 1406, Torre Sur, Santiago, Chile
전화	(56-2) 203-6780
팩스	(56-2) 203-6779
홈페이지	www.marval.cl

육상 운송업체

업체명	Agunsa
주소	Av. Andrés Bello 2687, Piso 15, Santiago, Chile
전화	(56-2) 203-9000
팩스	(56-2) 203-9009
홈페이지	www.agunsa.com
e-메일	aulloa@agunsa.cl
업체명	Tansportes Schiappacasse
주소	Camino a Lonquen 13.070, San Bernardo, Santiago, Chile
전화	(56-2) 396-8000
팩스	(56-2) 396-8101
홈페이지	www.schiappacasse.cl
e-메일	info@schippacasse.cl

업체명	DECAPACK
주소	Claudio Arrau 9452, Pudahuel, Santiago, Chile
전화	(56-2) 488-1000
팩스	(56-2) 488-1010
홈페이지	www.decapack.cl
e-메일	info@decapack.com

업체명	Pacific Logistic Services
주소	Av. Pedro de Valdivia Norte 0204, Providencia, Santiago, Chile
전화	(56-2) 753-4060
팩스	(56-2) 753-4069
홈페이지	www.pacificlog.cl
e-메일	ibarrospacificlog.cl

업체명	Transportes Bello
주소	San Ignacio 141, Loteo Industrial Portezuelo de Quilicura, Santiago, Chile
전화	(56-2) 738-6285
팩스	(56-2) 738-6289
홈페이지	www.transbello.cl
e-메일	tbello@transbello.cl

업체명	Saam
주소	Hendaya 60, Piso 8, Las Condes, Santiago, Chile
전화	(56-2) 731-8225
팩스	(56-2) 331-5033
홈페이지	www.saam.cl
e-메일	santiago@saamsa.com

주요 통관서비스 업체

업체명	Stephens Agencia de Aduana
주소	Blanco 1215, Valparaíso, Chile
전화	(56-32) 502526
팩스	(56-32) 502545/46/48
홈페이지	www.stephens.cl
e-메일	webmaster@stephens.cl

업체명	Jaime Sierralta Castillo
주소	A. Prat 214, Of. 402, Edificio Brac, Antofagasta, Chile
전화	(56-55) 222254
팩스	(56-55) 22303
홈페이지	www.sierralta.cl
e-메일	agencia.anf@sierralta.cl

업체명	Felipe Serrano Solar
주소	Doctor Barros Borgoño 225, Santiago, Chile
전화	(56-2) 235-1083
팩스	(56-2) 235-1087
홈페이지	www.felipeserrano.cl
e-메일	info@felipeserrano.cl

업체명	Agencia de Aduanas Pedro Serrano S.
주소	Mac Iver 238, Piso 8, Santiago, Chile
전화	(56-2) 422-2411
팩스	(56-2) 422-2499
홈페이지	www.comerint.cl
e-메일	info@comerint.cl

업체명	Agencia de Aduanas Pedro Santibáñez
주소	Huérfanos 770, Of., 1602, Santiago, Chile
전화	(56-2) 638-6100
팩스	(56-2) 638-6040
홈페이지	www.santibanez.cl
e-메일	agenciassantiago@santibanez.cl

업체명	Agencia de Aduanas Browne
주소	Santa Lucía 344-C, Santiago, Chile
전화	(56-2) 637-7000
팩스	(56-2) 637-7046 , 43
홈페이지	www.browne.cl
e-메일	agencia@browne.cl

업체명	Agencia de Aduanas Manuel Yañez
주소	Blanco Encalada 480, Talcahuano, Chile
전화	(56-41) 794200
팩스	(56-41) 749292
홈페이지	www.aaca.cl
e-메일	serviciocliente@aaca.cl

□ 참고: 한-칠레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 양식

한-칠레 FTA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 수출업자는 원산지 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는 양국 간 협정에 따라 아래의 서식과 같이 간소화된 양식을 사용하면 되며, 선적서류 발송 시 B/L, Invoice, Packing List와 동봉한다.

양식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칠레 FTA 협정문 검색 후 첨부자료(한-칠레 FTA 이행 고시 별지 제 9호 서식)를 다운로드하면 된다.

한-칠레 FTA에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과 관련하여 분실, 도난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수입통관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해 협정관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원산지 증명서를 사후 제출해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Issuing Number:		
1: Exporter (Name and Address)					
Tax ID No:					
2: Producer (Name and Address)			3: Importer (Name and Address)		
Tax ID No:					
4. Description of Good(s)	5. HS No.	6. Preference Criterion	7. Producer	8. Regional Value Content	9. Country of Origin
10. Remarks:					
11: Certification of Origin					
I certify that:					
-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d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c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 The goods originated in the territory of the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and there has been no further production or any other operation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2 of the Agreement.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Name(Print or Type)		Title			
Date(MM/DD/YY)		Telephone / Fax /E-mail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 매력도

칠레는 인구 약 1,600 만, 1 인당 국민소득 약 10,000 달러 수준의 작은 시장이지만 일관성 있는 시장개방정책과 기업의 투명성,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 등으로 인해 중남미 외국인 투자의 최고 선호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

실제로 칠레 정부는 내외국인의 칠레 시장 내 경제활동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고 있으며 모든 경제 및 산업 분야 전면 개방(일부 분야 제외), 정부간섭 최소화라는 외국인 투자정책 3 원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정치경제적 안정성, 일관성 있는 제도 등으로 인해 해마다 세계 여러 기관으로부터 남미에서 가장 안정 적인 투자처로 선정되고 있다.

특히 500 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와 정부간에는 계약 체결을 통해 국가 비상 사태 시에도 자유로이 외화를 송금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안전장치(D.L. 600 조항)를 마련해 정치,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불안정한 것으로 유명한 중남미 지역 중에서 정치적으로 인한 투자 리스크가 가장 낮은 국가로 꼽히고 있다.

또한 칠레는 1980년대에 남미 최초로 공기업 민영화를 단행하였으며 도로, 항만 등 사회 간접 자본 확충을 위한 외국 자본 유치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시행착오 끝에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BOT 시스템을 개발, 운영 중이다. 또한 약 50여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시장개방 및 자국 제품의 진출 판로를 확대하는 전략을 활용하였으며 2003년 한국과 아시아 국가와의 최초 FTA를 체결하여 아시아 시장에 대한 공약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른 시장개방으로 인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전자제품, 자동차, 기계류 등의 제 조업에 투자를 희망할 경우 연관산업이 발달하지 않아 부품의 현지조달이 어렵고 대부분 수 입에 의존해야 한다는 약점이 있다.

나. 칠레의 주요 경쟁력 지수

1) 낮은 국가 위험도

국제 신용평가에 따르면 칠레는 중남미에서만 아니라 세계에서 낮은 국가 위험도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Standard&Poor's, Fitch 등은 칠레의 국가 신용도에 A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Moody's도 칠레의 상태를 “긍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2) 경제 자유도

Heritage Foundation 이 발표한 2008년 경제자유도 순위에서 칠레는 총 157개국 중 8위를 차지하였다. (한국은 41위 기록)

3) 국가투명성

국제 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2008년 국가부패지수에서 칠레는 180개국 중 23위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40위 기록)

다.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

외국 투자자들은 어떠한 칠레 회사든지 아래 6개 분야 관련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의 지분을 100%까지 완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 해운업: 칠레 영토권 내의 해안, 하천, 호수에서의 여객·화물운송은 원칙적으로 칠레인 개인소유 기업이나 칠레인(또는 칠레 법인)이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칠레 소재 기업에게만 허용한다. 단, 900 톤 이상 화물운송 및 특수화물 운송 등은 예외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 항공업: 외국인 대표 취임이 불가능하며 칠레에 본사를 설치해야 한다.
- 매스컴: 외국인 대표 취임이 불가능하다. 다만 칠레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자본투자는 가능하다.
- 어업: 투자자의 국가가 해당국에서 칠레인에게 투자를 용인하는 범위와 동일하게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상대주의 적용)
- 원유개발 정제 및 판매업
-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국영석유공사 (ENAP)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투자가 가능하며, 채굴된 원유는 국제시세를 적용하여 ENAP 이 선취 매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원자력관련 광물개발
 - 우라늄, 토륨 등 원자력 관련자원의 채굴 및 판매는 원자력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채굴된 자원은 일차적으로 동 위원회에 판매되어야 한다.

2.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산업별 외국인 투자동향

1974년부터 2008년까지의 산업별 외국인 투자를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가 가장 활발한 분야는 광산업으로 3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가스·수도·서비스가 20%, 제조업이 12% 수준이다. 외국인 지분비율이 높은 광산 분야의 경우 캐나다, 호주, 미국 등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고, 최근 중국, 일본 자본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력, 가스 분야의 경우 스페인 기업의 영향력이 강세이다.

나. 국가별 투자현황

1974 년 이후 2008 년 말까지 대 칠레 투자 주요국(투자 누계 기준)으로는 미국(25.2%), 스페인(21.5%) 그리고 캐나다(16.6%)이다. 일본은 2.9%, 한국은 0.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최근 일본 및 중국의 대 칠레 투자자본이 칠레 광산업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주요 국별 對칠레 투자통계(1974-2008) - DL 600 신고 기준

(단위: US\$ 백만)

국가	투자금액	점유율(%)
미 국	16,945	24.24
스 페 인	14,512	20.76
캐 나 다	12,926	18.49
영 국	5,802	8.30
호 주	3,131	4.48
일 본	2,257	3.23
네덜란드	1,830	2.62
이탈리아	1,657	2.37
프 랑 스	1,537	2.20
스 위 스	1,285	1.84
기 타	8,018	11.47
Total	69,900	100

주: 칠레는 외국인투자 통계를 연간 단위로 집계 및 발표함에 따라 2009 년 최신자료 입수 불가능함. (2009 년 자료는 2010 년 상반기 중 발표 예정임)

자료: 외국인투자위원회(www.cinver.cl)

3.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양국 간 교역규모에 비해 투자진출은 미미

수출입 은행 집계 1980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의 대 칠레 직접투자 누계액(투자금액 기준)은 US 1억 달러 수준으로, 동 기간 중 우리나라의 총 해외투자액 US 768억 달러의 0.12%에 불과하다.

칠레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집계에 따른 경우 1974년부터 2008년까지 D.L.600 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들어온 한국의 투자규모는 대 칠레 총 외국인 투자액의 0.06%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칠레의 5대 교역국에 포함될 정도로 칠레와 활발한 교역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투자분야에서는 그 비중이 매우 미미하다.

연도별 대 칠레 투자 현황

(단위: US\$ 천)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Total	94	41	127,429	108	107,711
2005	5	2	3,306	5	599
2006	8	7	4,901	13	4,279
2007	12	2	30,331	9	26,295
2008	4	2	2,720	5	2,630
2009.6	3	1	350	1	300

주: 수출입은행이 집계 및 발표한 최신자료임.

자료: 한국 수출입은행

나. 제조업·도소매업에 집중, 분야별 구분에는 큰 의미 없어

수출입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본 우리나라의 대 칠레 투자를 업종별로 살펴볼 경우 광업 34.73%, 제조업 34.96%, 도소매업 26.35% 등의 분포를 보였으나, 우리나라의 대 칠레 투자 규모 및 건수가 워낙 미미하여 업종별 구분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한국의 대 칠레 투자 내역(업종별)

(단위: 건, US\$ 천)

	신고건수	신규법인 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총계	79	42	109,045	98	92,002
농림어업	11	4	5,777	8	2,863
광업	3	1	31,900	6	31,204
제조업	45	22	43,653	60	33,658
건설업	2	2	808	5	508
도소매업	16	12	25,408	17	23,670
통신업	2	1	1,500	2	100

자료: 한국 수출입은행(2008년 기준)

광업분야에 대한 투자는 과거 LG상사에서 칠레의 구리 광산에 투자했던 내역으로 보이나 (현재는 지분 미보유), 정확한 사실 파악은 불가능하다.

한편 2006년 포스코 건설에서 미국계 전력회사인 AES Gener사의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EPC 입찰을 수주하여 240MW급의 화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면서, 2006년 하반기에 칠레에 사무소를 개설하였다. 이후 신광목재가 칠레 남부에 목재가공업 투자 진출을 하였고, 이외에 미국 교포기업인 Stanford호텔에서 현지 호텔을 인수하기도 하는 등 우리 기업, 교포 업체의 투자분야가 다각화되고 있다.

칠레 진출 기업 리스트

연번	회사명	투자연도	지역	투자내역
1	삼성물산	1980	산티아고	지점 - 도소매업
2	삼성전자	1981	산티아고	단독법인 - 도소매업
3	LG전자	1981	산티아고	단독법인 - 도소매업
4	현대종합상사	1982	산티아고	지점 - 도소매업
5	STX팬오션	1987	산티아고	연락사무소 - 운수업
6	대우전자	1993	산티아고	단독법인 - 도소매업
7	이건산업	1993	라우타로	단독법인 - 제조업(베니어단판 등 목재)
8	세라젬의료기	2004	산티아고	단독법인 - 도소매업
9	태웅로지스틱스	2005	산티아고	단독법인 - 운송창고업
10	포스코건설	2006	산티아고	단독법인 - 건설업(플랜트)
11	한국타이어	2006	산티아고	단독법인 - 도소매업
12	신광산업	2007	푸르티아	단독법인 - 제조업(베니어단판 등 목재)
13	외환은행	2008	산티아고	연락사무소 - 금융업
14	세일	2008	산티아고	단독법인 - 건설업(보일러)

자료: 산티아고 KBC 자료 취합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주요 외국인 투자법령

칠레에서 외국인이 투자를 실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외국인 투자법령을 이용할 수 있다.

1) D.L. 600 외국인투자규정에 의한 투자

D.L. 600 은 외국인투자자(개인/법인)가 칠레 정부(경제부)와 일종의 투자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로 투자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중앙은행에서는 국가 경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의 외환시장 접근을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D.L. 600 조 규정을 통해 칠레정부와 투자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유로운 외환시장 접근이 가능해 투자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어 D.L.600 규정이 발효된 1974년 이후 칠레 외국인 투자의 약 70% 이상이 D.L. 600 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단, 투기성 단기 자본의 유입을 막기 위해 1년 이내에 철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달고 있다. D.L.600 규정을 통해 투자 자금을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사전승인을 획득해야 하며, 최소 투자금액 요건은 미화 500 만 달러이다. 고도기술의 경우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250 만 달러 이상도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승인이 나면 6 개월 이내에 투자규모, 투자 자본형태, 투자 완료기간 등 세부사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며, 광업투자의 경우 8년 이내, 기타 분야에 대한 투자는 3년 이내에 자본금을 반입해야 한다. 사전 탐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인정하는 광업프로젝트의 경우 자본금 도입기간을 최대 1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일단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정부 측은 계약사항을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지만 투자자는 증액투자, 투자목적 변경, 다른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권리 양도 등 계약 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국가를 상대로 계약사항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또한 D.L.600 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정세율 선택권을 명시하고 있다. 제 7 항에서 고정세율을 선택한 투자자의 경우, 일반 세율대신 10년간 42%의 고정세율을 적용받으며 해당기간 중 세율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세금이 제정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현 세제 시스템 하에서는 D.L. 600 조가 보장하는 42%의 고정세율보다는 일반 세율을 선택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고정세율을 선택한 투자자는 언제든지 일반 조세제도로 변경할 수 있으나 고정세율로의 복귀는 불가능하다.

D.L.600 을 통한 투자에 대한 승인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담당하며, 일정 절차를 거쳐 최장 1개월 내에 승인이 난다.

2) 중앙은행 외환규정 제 14 조(Capítulo XIV)에 의한 투자

칠레 중앙은행의 외환규정 제 14 조를 통해 투자하는 방식은 전반적으로 D.L. 600 규정의 경우와 유사하다. 두 방식은 투자액의 규모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14 조의 경우 최소 투

자액은 1 만 달러이다. 제 14 조를 통한 투자의 경우 D.L.600 규정과는 달리 정부로부터 계약을 통한 보증을 받을 수 없으며 D.L.600 에서 제공하는 조세고정제도는 제공되지 않는다. 하지만 D.L.600 과 비교할 때 자본금을 투자 기간과 상관없이 투자자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D.L.600 vs 외환규정 제14조

	D.L.600	중앙은행 외환규정 제14조
최소투자규모	US\$ 5,000,000	US\$ 10,000
투자절차	외국인투자위원회 승인	중앙은행에 외화반입 통보
투자금 회수	투자개시 1년 후부터 가능	항시 가능
조세제도	일반조세제도/조세고정제도 중 택1	일반조세제도
장점	높은 안정성(정부와 계약)	자본금회수 용이, 간편 신속한 절차, 높은 효율성

나. 외국인 투자 장려분야

2000 년도부터 칠레 정부는 칠레생산진흥청(CORFO)을 통해 고도기술 관련 투자 건에 대해 별도의 인센티브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소 US\$ 100 만 이상의 IT, BT, 백오피스 등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프로젝트 및 신기술 도입 투자에 대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고도기술 관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 사전타당성 조사자금 지원
 - 투자기업 또는 외부 컨설팅업체가 수행하는 사전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토질분석, 건축&엔지니어링 디자인 등에 대한 총 경비의 일정액 지원
- 고정자산 구입비용 지원
 - 부동산 매입, 인프라 구축, 기술장비 구입 등에 대하여 최고 50 만 달러 범위 내에서 총 경비의 40%까지 지원
- 고용훈련보조금 지급
 - 고용인력 1 인당 연간 최대 3,500 달러 범위 내에서 IT 산업 전문가, 기술인력 등의 훈련 경비 지원
- R&D 인센티브
 - 칠레 정부기관 및 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IT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대하여 80 만 달러 범위 내에서 총 경비의 60~70% 지원

다. 외국인 투자 제한분야

칠레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하며 칠레기업에 대한 100%의 지분 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 연안운송업

- 칠레 영토권 내의 해안, 하천, 호수에서의 여객·화물운송은 원칙적으로 칠레인 개인 소유 기업이나 칠레인(또는 칠레 법인)이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칠레 소재 기업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 단, 900 톤 이상 화물운송 및 특수화물 운송 등의 경우 예외조항 적용
- 900 톤 이상의 화물수송의 경우 예외조항이 적용되나, 이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운송 가격에 기본 수입관세 6%를 추가하여 응찰하여야 하고 이 가격이 국내업자 응찰 가보다 낮은 경우에 수주 가능

○ 항공업

- 외국인 대표 취임 불가, 임원진 및 스태프 칠레인 구성 원칙, 대표의 칠레 거주 및 칠레 내 본사 설치 의무

○ 방송업

- 외국인 대표 취임 불가, 임원진 및 스태프 칠레인 구성 원칙, 단, 칠레 외국인투자 위원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자본투자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

○ 어업

- 투자자의 국가에서 칠레인에게 허용하는 동일 범위 내에서 투자 허용(상대주의)

○ 연료자원(원유/천연가스) 개발 및 판매

- 칠레 정부와 특별계약(CEOP)을 체결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도 연료자원 탐사/채굴권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모든 연료자원은 국가에 귀속되므로 칠레국영석유공사(ENAP)에서 국제시세를 적용하여 우선 매입권이 있음.

○ 원자력관련 광물 개발 및 판매

- 우라늄, 토륨 등의 채굴도 연료자원과 마찬가지로 정부(원자력위원회)와의 계약 체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일차적으로 원자력위원회에 판매하도록 되어 있음.

라.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칠레 정부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특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발전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최근 IT, BT 등 무공해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 확대가 논의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 집중분야로 지정된 바 있다.

□ 지역별 인센티브

칠레는 크게 12 개의 행정구역과 수도권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지역적으로 고립된 Arica 와 Parinacota 등 최북단 제Ⅰ 지역, Tierra del Fuego 등 최남단 제ⅩII 지역 등에 투자 시 조세 감면, 보조금, 연구비 지원 등 일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단, 광산업은 인센티브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1) D.F.L. 15 인센티브

- 해당 지역: XI, XII 지역 및 X 지역 일부 지방(Chiloe, Palena)
- 수혜 대상: 연 매출액 100 만 달러 이하(대형 광산업체 및 수산업체 제외) 기업 및 최대 1.4 백만 달러의 프로젝트
- 수혜 내역: 토지를 제외한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액의 20%에 대한 면제
- 관련 기관: CORFO

2) D.L.889 인센티브

- 해당지역: 제 I, II, III, XI, XII 지역 및 X 지역 일부 지방(Chiloe)
- 수혜대상: 대형광산업체, 금융서비스업체, 수산업체 제외 모든 외투기업
- 인센티브: 고용보조금 제공(고용인력 1 인당 월 38 달러 한도 내 17% 임금 환급)
- 관련기관: SII(국세청)

3) Navarino & Tierra del Fuego 법

- 해당지역: Tierra del Fuego 도서지역 및 칠레령 남극
- 수혜기간: 2035 년까지(일부 지역 2036 년까지)
- 수혜대상: 최소 25% 이상의 칠레 재화 및 서비스를 활용하는 광업, 제조업, 운송업, 어업, 관광산업 관련 외투기업
- 인센티브: 제 1 종 법인소득세, 부가세, 수입세 감면, 칠레 본토에 대한 총 판매액의 20%에 해당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현금 지원
- 관련기관: SII(국세청), CORFO

4) Tocopilla 법

- 해당지역: 제 II 지역 Tocopilla 항구
- 수혜기간: 2027 년까지
- 수혜대상: 광산장비 관련 제조, 수리, 장비 취급 외투기업
- 인센티브: 제 1 종 법인소득세, 부가세, 수입세 감면
- 관련기관: SII(국세청), CORFO

5) 기타

칠레생산진흥청은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산티아고 이외 지역에 연간 30 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은행 대출보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TodoChil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산티아고 시 이외 지역에서 진행되는 40 만 달러 이상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8,400 달러 한도 내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비용의 50%(200 만 달러 이상의 대형투자에 대해서는 최고 US 50,000 달러 한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IT, BT 등 고도기술 관련 투자의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자금 지원, 고정자산 투자 파이낸싱, CORFO 기술센터 입주지원, Innova Chile 라는 국가 혁신 기술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R&D 자금 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5. 진출형태별 절차

칠레에서는 사업개시를 위한 과정이 매우 간소화되어 있으며 투자 진출 형태에 관계없이 조세 제도가 거의 동일하여 외국기업 진출 시 행정절차가 매우 간편하다. 칠레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개인회사 등 법인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나 외국인의 투자진출 시 형태는 현지 법인과 해외지사(Branch Office)으로 나뉘어진다.

가. 법인 설립

칠레 법인은 주식회사(S.A., Sociedad Anonima)와 유한회사(Ltda., 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2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칠레는 법정 최소자본금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의 사정에 따라 자본금을 정하고 회사 정관 및 기업 설립 서류를 상업 등기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에 포함돼야 하는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 유한 또는 주식 회사에 따라 주식관련 내용 등은 일부 상이하다)

- 정관 포함 내용
 - 발기인(창립주주) 인적 사항, 회사명 및 주소, 사업내용 및 운영방안, 자본금 및 주주별 구성, 회계연도, 주주총회 일정, 이익배당방법, 청산방법, 중재방법, 주요 임원 및 감사진 명단 등

1) 법인 설립 절차

□ 기업 설립 구비 서류 작성, 정관 작성

□ 회사 설립 등기(설립 60일 이내)

회사 정관과 법인설립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등기소(www.conservador.cl)에 제출하여 법인 설립 등기를 한다. 3~7일 정도 소요되며 등기비용은 5,500페소+자본금의 0.2%이다. (최대 30만 페소까지 부과)

□ 관보에 법인 설립 공시(관보: Diario Oficial)

주식회사의 경우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관보(Diario Oficial)에 법인설립을 공시한다. 관보 게재 비용은 글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신청 후 게재까지 3~10일 정도 소요된다.

- 관보 게재 정보
 - 법인 설립 목적, 주주 명단, 법인주소, 자본금 및 주주별 구성, 주요 임원 및 감사진 명단, 주주총회 일정, 이익배당방법, 청산절차, 중재절차, 임시이사회 명단, 기타 주주 동의사항 등

□ 납세등록번호(RUT) 발급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세청 사무소)

□ 영업허가증(Patente Comercial) 발급

2) 지사/연락사무소 설립절차

칠레에 지사 및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립 서류를 갖추어 공증을 받은 뒤 60일 이내에 상업등기소에 지사 등록을 마쳐야 한다.

- 지사설립 구비서류
 - 본사의 정관 및 내규
 - 본사가 설립 및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서
 - 본사가 지사장에게 부여한 본사 대리권(Power of Attorney)
 - 지사의 상호 및 목적
 - 지사로의 자금 지원 및 방법
 - 지사의 주소

사전에 본사의 법인정관, 위임장, 임명장 등 구비서류 일체를 주한 칠레 대사관에 제출하여 인증을 받아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에서 준비해 온 서류를 칠레 외무부에 제출하여 다시 인증 받은 후 해당 서류를 공증한다.

3) 공장 설립 절차

공장 설립 절차는 공장의 형태, 규모,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장 설립에는 일반적인 건축허가부터 환경영향평가 승인까지 다양한 절차가 수반되므로 현지사정과 법률에 밝은 투자컨설팅 사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장 부지 매입	-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공업용지로 적합한지 사전 감정절차를 거쳐야 함. - 부동산 구입시에는 협상력 있는 부동산 업체에 위임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음. - 건축허가(공장설립허가)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전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설립허가를 취득한 뒤 매매하는 것이 좋음.
건축허가	- 건축 허가는 해당지역 구청에 비치된 신청서와 공장설립에 관한 세부 계획서(설계도, 지형도, 기술 명세서)를 제출하여 신청 - 각 구청이 신청서를 검토하는 데에는 30일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건축업자의 technical study가 첨부될 경우에는 15일로 시일이 단축됨.
완공검사	- 건축이 완공되면 해당지역 구청에 검사를 요청해야 함. 검사는 요청 후 15~20일 이내에 실시됨. 구청 담당자는 완공 건축물이 건축허가서 기준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검사 확인서 발부
사업면허 취득	건축물 완공에 대한 최종검사확인서 끝나면 공장을 가동하기 이전에 사업면허(Commercial and Industrial Patent)를 취득해야 함.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음. - 최종검사확인서 - 국세청 세금 납입서 - 회사 정관 및 내규 - 공장 위생처리 관련 계획서 · 수속은 약 10일정도의 시일이 소요됨.

나. 각종 등기, 허가 절차

1) 상업등기 절차

- 절차
 - 등기소(<http://www.conservador.cl>)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요구하는 구비 서류 확인→사무소 내방→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소요기간: 최대 일주일

2) 납세등록번호(R.U.T) 취득절차

- 절차
 - 사무실 소재지 관할 국세청 사무소 내방→제F-4115호 서식 작성(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sii.cl>에서 다운로드 가능)→국세청의 사업장 소재지 확인→납세번호 발급
- 구비서류
 - 대표자 칠레 주민등록증(대리인이 갈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공증서류)
 - 공증된 회사 설립 관련 서류
 -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경우: 관보 게재 내역 및 상업등기소 등록서류

3) 영업활동허가(Patente Comercial) 취득절차

관할 구청에 따라 요구하는 절차가 상이하므로 법인 설립 자문 변호사를 통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용이하다.

- 구비서류
 - 회사 납세등록증(RUT), 회사 정관 사본(법인일 경우) 및 기업설립 관련 제반 서류
 - 기타 업종에 따라 관련기관 허가서 등 필요
 - 관할 구청 및 영위 업종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사전에 변호사를 통해 확인 후 준비해야 한다.
- 비용: 초기자본금의 0.0025~0.005(매년)
- 소요기간: 평균 20일

다. 투자관련 정부 서비스 기관

1) 외국인투자위원회(Comite de Inversion Extranjera; Cinver)

- 주요 기능 및 권한
 - 외국인투자법령(DL600) 운영 및 감독
 - 투자유치활동전개(자료발간, 홍보활동, 투자유치단 파견 등)
 - 투자관련 무역협상 참여(FTA, APEC, 기타 양자, 다자 투자협정 등)
 - 외국인직접투자 통계운영
 - 자체 해외조직 및 지방조직이 없어 해외의 경우 대사관 상무관, 지방의 경우 경제 진흥청(Corfo) 등을 통하여 투자유치업무 위임. 특히 고도기술투자, 저개발 지역 투자 유치의 경우에는 Corfo와 주로 협력

- 조직 구성
 - 주요의사 결정기구인 위원회(경제부장관, 재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중앙은행장 등 4명으로 구성되고, 경제부장관이 당 연직 위원장임)를 두고 있으며, 기관의 실질운영은 부위원장(Vice president)이 담당
- 홈페이지: www.cinver.cl

2) 칠레 경제 진흥청: CORFO

- 칠레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력을 진흥하는 기관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고도기술, IT 분야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담당하고 있다.
- 홈페이지: www.corfo.cl

3) 칠레 중앙 은행: Banco Central

- 외국인투자 관련, 외환법 14조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관할하고 있다.
- 홈페이지: www.bcentral.cl

4) 정부 온라인 행정서비스: Tramite Facil

- 칠레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행정절차 안내 사이트이다.
- 홈페이지: <http://www.tramitefacil.gov.cl>

라. 투자관련 법률회사, 컨설팅 회사

다음은 외국인 투자자들에 도움이 될 만한 주요 법률 사무소 및 컨설팅업체 리스트이다.

- DELOITTE(www.deloitte.cl)
 - Av. Providencia 1760, piso 7, Providencia
 - Tel: 56-2-729 8128 , Fax: 56-2-374 9177
- KPMG(www.kpmg.cl)
 - Isidora Goyenechea 3520, Piso 11, Las Condes
 - Tel: 56-2-798 1000
- PRICEWATERHOUSECOOPERS(www.pwc.cl)
 - Av. Andrés Bello 2711 Piso 5, Torre de la Costanera, Las Condes
 - Tel: 56-2-940 0000 , Fax: 56-2-940 0504

6. 투자입지여건

가. 자유무역지대

칠레 정부는 수출 산업 장려 정책 및 지역균형개발의 일환으로 Iquique(칠레 북단)와 Punta Arenas(칠레남단)에 자유무역지대를 승인하였으며 Arica(페루 국경 인접 지역)에도 부분적으로 자유무역지대를 허용하였다. 이러한 자유 무역 지대에는 제품의 운송과 저장이 용이하도록 물류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

□ 이끼게 자유무역지대(ZOFRI: Zona Franca de Iquique S.A)

- 설립연도: 1975년 6월25일(Decree Law 341)
- 운 영 자: Zona Franca de Iquique S.A
 - Tel: (057) 515100
 - Fax: (057) 515190
 - E-mail: Zofri_inf@zofri.cl
 - Home page: <http://www.zofri.cl>
- 면 적: 230 헥타르
- 입주조건: 상업 및 공업활동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
- 입주특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 입지적 특성: 칠레 북부 태평양 연안 항구도시로 칠레를 포함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대상 중계무역지로 적합
- 인프라: 물류(Logistics) 서비스, 창고(17,880 평방미터), 자동차 야적장(18 헥타르), 부품 센터(자동차부품 소매 60개 숍), 공업시설(조립, 제조공장)을 위한 600평방미터 규모의 작업장 6개), 쇼핑몰(360개 숍 입주)은행, 우체국, 환전소, 세관 등 밀집), 컨벤션 센터(500백석 규모 1실, 50실 규모 4실), 공업단지 등
- 주요 입주업체: 제조업체들보다는 소니, 삼성, LG, 닌텐도, 몽블랑, 롤렉스, 카시오 등 유명 브랜드의 수출입 디스트리뷰션 센터들이 다수 입주
- 특기사항: 제조업보다는 칠레 인근국에 대한 물류기지로서의 기능 활용이 적합함.

나. 주요 산업단지

현재 칠레에는 여러 산업단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규모 및 입주기업 면에서 한국의 산업단지 개념과는 조금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현재 칠레 산업단지 대부분은 주로 San Bernardo, Quilicura, Pudahuel과 같은 산티아고 도심 외곽에 분포해 있으며 제조업을 비롯, 수입유통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입주해있다.

산업지대는 보통 가스, 전기, 용수 등의 인프라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정 산업분야를 특화한 클러스터는 매우 적으며 보통 같은 단지 내에도 사무실에서 제조공장에 이르기까지 입주형태가 다양하다. 산티아고 주변 산업지대는 특히 항구로 통하는 고속도로, 공항 등과 인접해 물류 기지 용도로 많이 운영되고 있다.

칠레의 산업지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곳은 없으며, 모두 민간에 의해 조성, 운영되고 있다. 산업단지 입주를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주요 산업단지는 다음과 같다.

- Enea
 - 수도권 산업단지 중 규모가 최대이다. 산티아고 남서쪽에 총 1,100 헥타르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공항·항구와 접근성이 뛰어나다.
 - 주소: Av. Américo Vespucio 0100, Pudahuel, Santiago
 - Tel: (562) 601-0601, Fax: (562) 602-0519
 - <http://www.enea.cl>
- Parque Industrial Coronel
 - 칠레 제 7지역에 305 헥타르로 구성되어 있는 산업지대로 공업지대, 상업지대, 창고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주소: Inmobiliaria Coronel S.A., Avda. Cordillera 3633
 - Tel: (56-41) 79 04 00, Fax: (56-41) 79 04 01
 - <http://www.parqueindustrialcoronel.cl>
- La Casa de Piedra
 - 산티아고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33만 S/M 규모로 69개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 주소: Ismael Valdés Vergara 382, Santiago - Chile
 - Tel: (56-2) 738-6069, Tax: (56-2) 738-6068
 - <http://www.lacasadepiedra.cl/>
- Edificio Tecnológico de CORFO
 - 칠레 생산진흥청에서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건설한 센터로, 산업단지보다는 사무실·R&D센터 성격의 빌딩이며 입주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주소: Av. Tupungato 3850, Parque Industrial Curauma, Valparaíso
 - Tel: (56-32) 257-0100
 - <http://www.corfo.cl/> (운영기관인 CORFO 홈페이지)
 - e-메일: edificiotecnologico@corfo.cl

다. 사무실 임차

사무실 임대가격은 소재지, 건축연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어렵다. 참고로 산티아고 시내에서 임대가격이 가장 높은 신흥 오피스빌딩 중심가인 El Golf, Isidora Goyenechea 지역의 최신 신축빌딩 임차가격은 2009년 5월 기준 0.7 UF/m²(부가세 19%, 주차장 비용 등 별도)로, 부가세까지 포함하여 환산할 경우 제곱 미터당 임차면적이 미화 30달러에 육박하여 비싼 편이며, 공실률도 세계 최저수준인 0.4%이다.

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부동산 조회하는 법

www.portalinmobiliaria.com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칠레의 부동산 검색이 가능하다. 이 사이트에는 여러 중개업체에서 등록해 놓은 주택, 사무실, 공장, 토지 등의 가격 및 사진이 등재되어 있어 지역, 면적 등 원하는 조건에 맞게 부동산을 조회하여 대략적인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 각 물건별로 담당 중개업체의 연락처가 함께 등재되어있으므로 관심이 있을 경우 e-메일, 유선상으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물건을 보고자 할 경우 중개업체와 사전에 스케줄을 조정하여 함께 해당 부동산을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7. 노무관리

가. 고용 일반

□ 고용계약

기업 내 종업원의 최소 85%는 칠레 국적인을 고용해야 한다. (종업원 25인 미만의 기업 제외) 또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칠레에서 5년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이나 부모 중 어느 한쪽의 국적이 칠레인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칠레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최소 고용계약기간은 1개월이다. 1회 연장이 가능하며, 또 다시 연장 시에는(또는 계약 기간의 합이 2년 초과 시) 영구고용계약으로 본다. 예를 들면 처음 1개월 계약 후 다시 6개월 계약했을 경우 6개월이 지난 후 재계약 시에는 영구계약이 된다. 따라서 영구 계약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단 1회만 갱신해야 하며, 총 계약기간이 2년이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근무시간

법정 근무시간은 주당 45시간이며, 노사 합의에 따라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초과근무 시에는 기본 시급 이외에 50%의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부사장, 이사, 부장 등 고위직 근로자들에게는 근무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주는 사업장에 근무시간기록부(Libro de Asistencia, 리브로 데 아시스텐시아)를 비치하여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 노동청에서 작업장 실태 조사를 나올 경우 근무시간 기록부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하고 있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받는다. 또한 노무관련 소송 발생 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비치하고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는지 항상 점검해야 한다.

□ 법정휴가

근무연한이 1년이 경과할 경우 근로자는 연간 15일의 유급 휴가를 갖는다. 근속연수가 10년이 되면 이후 매 3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된다. 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연속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주와 사전에 합의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산부의 경우 출산일 전 6주, 출산 후 12주의 휴가를 가질 수 있다. 이 기간에 고용주는 임금 지불을 중단하며, 근로자는 대신 자신이 가입한 사회보장기관으로부터 보상금을 받는다.

질병 혹은 사고 시 의사의 진단서가 명시하고 있는 기간 동안 병가를 가질 수 있다. 병가 기간 중 고용주는 임금지불의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는 의료보험사로부터 해당 기간의 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다.

□ 고용계약 종료, 해고

고용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계약기간 중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종결될 수 있다. 해고 통지는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종업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어떠한 보상금 지불 없이 해고할 수 있다.

- 증명된 부도덕적 행위, 손실 혹은 피해
- 계약서상에 명백히 금지된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달에 2회 연속으로 월요일에 결근할 경우
- 해당 근로자가 결근할 경우 작업장의 정상적 가동에 상당한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할 경우
- 고용주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에 작업장을 이탈할 경우
- 계약서상에 명시된 작업장에서 근무를 거부할 경우
- 작업장의 안전, 정상적 작동 혹은 다른 근로자들의 안전, 업무 혹은 다른 근로자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를 했을 경우
- 시설물에 대한 고의적 파괴

직원을 해고할 경우 고용계약종료확인서(Finiquito, 피니끼또)에 해고직원의 서명을 받아 이를 공증한 후 노동청에 신고하면 추후에 분쟁 발생 소지가 없다. 또한 기업의 구조조정 시 생산성이 저하되었을 경우, 근로자의 기술 수준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등 회사의 내부 사정을 고려하여 해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는 근로자의 근무연한에 최근 1개월치 봉급을 곱한 액수를 보상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최대 11개월치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이 났을 경우 판사가 10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최대 퇴직금 x 2를 주어야 한다.

분쟁을 피하기 위해 고용계약종료확인서(Finiquito, 피니끼또)에 해고직원의 서명을 받아 이를 공증한 후 퇴직금을 전달한다. 해고 직원이 확인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은 소송을 제 기하여 퇴직금을 더 받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이다.

□ 쟁의 발생 시

쟁의 발생 시 대체근로자 투입과 관련, 고용주는 대체 노동자를 투입할 수 있으나, 대체 근로자 1인당 4UF(한화 12만 원 상당)를 노조 측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기타 형태의 고용

1) 용역계약

고용 계약에 의한 고용형태와는 별도로 자주 이용되는 민법상의 용역계약(contrato a honorario)이 있다. 이는 특정 프로젝트 등에 단기 용역이 필요할 경우 빈번히 이용되는데 이 경우 고용주는 일정한 업무를 부여하고 노동자는 이를 수행한 후 용역료를 지급받아 boleto de honorario(용역료 영수증)을 고용주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는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수입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장비, 의료보험비는 근로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고용주는 이에 대해 책임이 없다.

주의할 점은 근로자는 해당 업무만 완수하면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출석부 기재, 일과시간 준수, 복종 강요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노동 계약으로 간주돼 분쟁이 생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2) 하청(외주용역)

‘하청서비스’란 기업의 특정 업무 수행에 대해 하청업체(Contratista)에 외주를 위탁하는 것으로, 하청업체에서는 자사의 직원, 기술, 장비 등을 활용하여 위탁받은 작업을 완료하는 시점까지 원청 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로자들은 하청업체의 정규직으로 하청업체에서 급여 및 고용주세 납부 등의 의무를 지나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하청업체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지급할 대금 중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금을 사전에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력파견과 비슷한 형태로 볼 수 있으나 파견근로 양산을 막기 위해 하청업체는 업종을 특정 서비스 1 가지로 신고하고 해당 업종에 대한 서비스만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주로 광산업계에서 하청계약을 사용하고 있다.

나. 법정 최저임금

칠레법(2008.7.1 개정법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최저임금은 18~65세의 성인의 경우 월165,000페소(약 US\$300, 9.22일 기준 환율 달러당 544페소)이며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의 근로자의 최소 임금은 118,690 페소(US\$240)이다. 일반 가정에 고용된 경우 최저임금은 통상 최저 임금의 75% 수준인 119,250(US\$240)페소이다.

칠레 법정 최저임금

기간	비정규직 여성 최저임금	법정최저임금 (18~65세)	법정최저임금 (가정부)	법정최저임금 (18세<, 65세>)
2001.6~2002.5	70,562	105,500	79,125	81,661
2002.6~2003.6	72,326	111,200	83,400	83,703
2003.7~2004.6	75,219	115,648	86,736	87,051
2004.7~2005.6	78,050	120,000	90,000	90,327
2005.7~2006.6	82,889	127,500	95,625	95,927
2006.7~2007.6	87,697	135,000	101,250	101,491
2007.7~2008.6	92,897	144,000	108,000	107,759
2008.7~2009.6	102,558	159,000	119,250	118,690
2009.7~	106,435	165,000	136,950	123,176

주: 2009년 9월 기준 최신자료, 2010.6월 최저임금 변경예정

자료: 노동법

8. 조세제도

가. 거주자 법인소득세

1) 법인소득세율

법인,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 외국회사의 지점(branch)의 소득은 다음 단계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 기본세율(first category tax): 회사에 의해 소득이 취득될 때 17%
- 추가세율(additional tax): 이익 배당시점(지점의 경우 해외 송금될 때) 35%

즉, 회사에 의해 취득·배당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17%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단, 연간 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지 않고 매월 잠정세금(Provisional Monthly Payments)을 납부한 후 4월에 정산한다.

소득이 비거주자 파트너, 비거주자 주주에 의해 인출되거나 배당될 경우 또는 해외 송금될 경우 그 소득에 대해 35%의 추가세율(additional tax)이 적용된다. 추가세 납세 의무자는 인출, 배당, 해외 송금된 소득에 대해 부과된 1단계 범주의 세금에 해당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소득세 산정의 예

세전순소득	\$100
과세소득(taxable income)	\$100
기본 세금(17%)	\$17
추가 세금(100달러에 대한 35%)	\$35
세액공제(기본세금 17%)	- \$17
순추가세	\$18
총 세금부담액	\$35
- 기본 세금	\$17
- 추가 세금	\$18

자료: 칠레 국세청

이자와 로열티 지급은 과세대상순소득에서 공제되나, 배당금(dividends)은 공제되지 않는다. 외국에서 납부된 소득세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간손실은 유보이익(retained profits)으로 상쇄돼야 하며, 차감 잔액(balance)은 제한없이 이월이 가능하다.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다음해 4월 중에 납세해야 한다.

거주자법인이 비거주자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35%의 원천세율이 적용된다.

2) 지방세(Municipal Duty=Commercial License)

지방세는 영업허가증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납부하는 세금으로 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고, 자본금의 0.25~0.5% 수준이며 최대 미화 약 50만 달러를 초과하지 못한다.

3)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es)

양도소득세는 없다. 다만, 주식, 광산, 사채 및 기타의 자산 매각으로부터 취득되는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17%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나. 거주자 개인소득세

1) 세율

개인소득은 전 세계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연간조세단위(Annual Tax Unit)라 불리는 지표 단위(indexed unit)에 기초한 표에 의하여 0~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외국에서 지불한 소득세는 세액공제가 불가하다.

2) 양도소득세

법인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에 대한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부동산 매각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다.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1) 납세의무

칠레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기업이 칠레 내에서 획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지점에 대해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파트너십에 따른 외국인 파트너는 그들이 참여한 대가로 얻는 이익에 대해 35%의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

2) 원천세율

칠레기업이 비거주자 주주에 배당하는 현금배당에 대해서는 35%의 원천세율이 적용된다. 단, 이미 납부한 기본세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비거주자 개인 혹은 법인에 지급되는 상표권, 특허권, 공식, 기술적 지원, 기타 유사한 서비스 사용료에 대해서는 30%의 원천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 지급에 대해서는 35%의 원천세율이 적용된다. 단, 칠레중앙은행이 인정하는 외국은행 및 기관에 지급될 경우 4%가 적용된다.

라. 본사 파견 지사(Branch) 근무요원에 대한 개인소득세

지사에서 근무하는 본사파견 지사장은 본사에서 파견한 직원으로 인정하여 신고 소득(주채수당)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익년 5월에 납부한 세금의 80~90%를 환급받는다. 그러나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은 현지 채용 직원으로 간주되어 현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다.

마.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예외 규정

칠레정부와 D.L 600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계약을 체결하고 5,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외국인투자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투자자)는 원할 경우 영업 개시해로부터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42%의 고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Taxable Profit)	1,000
1종소득세-법인세(FCT) 17%	(170)
배당이익(Distributed Profits)	830
송금세(Tax on remittance) 25%	(250)
이익금(Profits to be remitted)	580

자료: 칠레 국세청

-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칠레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문 홈페이지
- http://www.sii.cl/portales/inversionistas/index_ing.html

바. 기타 주요 조세

1) 부가가치세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시 19%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2) 상속·증여세

증여자가 생전에 행한 증여와 그의 사후의 재산의 이전은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세율은 관련 금액과 고인의 수혜자와의 관계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다.

3) 사회보장세

월 급여의 약 20%(연금보험 12.39%, 의료보험 7%)를 사회보장세로 납부한다. 현지법인 혹은 지사에서 근무하는 본사파견 외국인의 경우 사회보장세 납부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4) 부동산세

부동산의 경우 과세평가액(fiscal assessment)의 약 1.5%를 부동산세로 매년 납부해야 하며, 1년에 4회 분할 납부한다. (분기별)

5) 인지세(stamp tax)

환어음, 약속어음, 기타 금전신용계약서류에 대해서는 대부기간 중 매월 0.1%에서 최고 1.2%의 인지세율이 적용된다. 단, 일람불 환어음인 경우 0.5%의 고정세율이 적용된다.

6) 광업세(Mining Activity tax)

광산 채굴업체는 연간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광업세가 부과된다.

연간 구리판매량(MTF기준)	세율
12,000MTF 이하	비과세
12,000~15,000MTF	0.5%
15,000~20,000MTF	1.0%
20,000~25,000MTF	1.5%
25,000~30,000MTF	2.0%
30,000~35,000MTF	2.5%
35,000~40,000MTF	3.0%
40,000~50,000MTF	4.5%
50,000MTF 이상	5.0%

자료: Cochilco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외환 규제

칠레는 특별한 외환 관리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다만 D.L.600 투자법을 통한 외국인 투자 자본의 경우 들어온 지 1년 동안은 다시 반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나. 과실 송금

별도의 외환 규제가 없으므로 과실송금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칠레에 거주하지 않는 투자자(개인, 법인 포함)에게 칠레에서 발생한 소득을 송금할 경우 35%의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기본소득세 17%는 세액공제)

다. 현지 자금 조달 방법

납세번호(RUT- Rol Unico Tributario)를 보유한 기업이나 개인은 현지 은행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또한 BOT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의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현지 금융기관의 파이낸싱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최종 대출 여부는 각각의 은행이 정한 기준대로 심사를 거친 후 결정하고 있다.

참고로 각 금융기관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출 절차 및 요구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최종 대출결정까지의 소요기간도 최대 3개월까지 소요되는 등 은행마다 매우 까다로운 검토를 진행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그 밖에 IT 관련 고도기술 수반사업의 경우, 은행 대출 이 외에 CORFO(칠레생산진흥청)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여 통과되면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상세 내역은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법인설립-투자인센티브' 항목 참조)

라. 환전

칠레의 경우 은행, 환전소(Casa de Cambio, 까사 데 캄비오) 등을 통해 외환을 자유로이 환전할 수 있다. 보통 은행 및 공항환전소보다 환전소 환율이 미 달러화 기준 1~3페소 정도 높다.

마. 환율

칠레의 환율제도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유화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달러 환율 변동이 커짐에 따라 중앙은행의 부분적인 개입이 있는 상황이다.

칠레에는 일반 달러화-페소화 환율과 별개로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되는 가상의 화폐단위인 UF(Unidad Fomento)가 있으며, 매달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1달 간의 환율이 고시된다. 주로 부동산 거래 및 대출거래 등에 사용된다.

2009년 9.22일 기준 미 달러화 대비 환율은 US\$1=CLP544이다.

V. Business 참고정보

1. 시장 특성

가. 소비자 특성

칠레는 주변 남미국가와 다르게 유럽식 선진국가라는 자부심과 차별성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하며 자신의 뿌리가 유럽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디자인, 패션을 더 고급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며 상품, 디자인, 색상 선택에 있어서도 다소 차별하고 보편적인 제품을 독특한 제품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상위 20%가 총 수입의 약60%를 차지하고 하위 20% 계층이 총 수입의 약4%를 차지하는 극단적인 빈부격차로 인해 수요의 양극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므로 1인당 GDP(1만 달러에 육박) 수준 및 국가 경제 규모만으로 시장을 평가해서는 곤란하다. 소비자의 절대다 수는 가격 지향적 고객이며, 바이어들 또한 제품 구매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가격조건을 꼽고 있다.

나. 한국상품 인지도

칠레는 한국 다음으로 한국산 자동차 비중이 높은 국가로, 수입 자동차 4대 중 1대 이상이 한국 차량이다. 자동차 이 외에 가전제품, 핸드폰을 중심으로 칠레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 국산 브랜드 인지도는 중남미 최고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하철 역, 공항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삼성과 LG 전자의 LCD 전광판이 쉽게 눈에 띈다. 유명브랜드가 칠레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함으로써 칠레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 또한 제고 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자동차 이외에 가전, 난방기기 등 한국산 제품의 경우 현지 유통업체들은 태극기와 함께 Made in Korea라는 문구를 눈에 띄게 표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칠레 내에서 한국제품에 대한 이미지 및 소비자 선호도 수준을 증명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전, 자동차 등의 고가 품목을 제외한 일반 소비재 제품들의 경우 시장 특성상 중국, 대만제품에 밀리는 실정이며 바이어들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한국'의 기술력과 품질, '아시아 (중국/대만 등)'의 저렴한 가격요건을 동시에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산 제품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China를 바로 드러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 Hecho en China(Made in China)를 사용하는 대신 Hecho en R.P.C(People's Republic of China의 준말)를 쓰는 경우도 있다.

다. 유통채널

칠레는 대형유통업체의 파워가 막강한 시장으로 3대 유명 백화점, 슈퍼마켓(Falabella, Paris, Ripley) 체인이 있으며, 이들 백화점이 단독 브랜드숍, 영화관, 식당가, 슈퍼마켓과 함께 대형 쇼핑 콤플렉스를 이루어 성업 중이다. 칠레의 유통시장은 3개 대형 유통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전자 제품의 경우 우리나라의 용산전자상가 등 별도의 전자 전문상가가 없어 백화점과 이들 백화점 계열의 대형 마트 체인을 통한 유통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일반 소비재 품목의 경우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이들 대형 업체와 직접 컨택하거나, 대형업체 납품 바이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산층 이상 소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거주지 부근의 대형 슈퍼마켓, 백화점 체인 등을 이용하며, 고가 제품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 중앙역(Estacion Central), 빠뜨로나또(주로 의류, 잡화 품목 밀집) 등의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을 주로 구매하고 있다.

2. 물가정보

(1 US\$ = 506.43CLP / 2009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항목	가격(CLP)
식품류	쌀 1kg	1,299
	계란 12개	1,199
	쇠고기 등심 1kg	7,490
	돼지고기 등심 1kg	3,290
	우유 500ml	325
	식용유 1L	1,279
	생수 1L	582
	맥주 (하이네켄 355ml, 6팩)	2,524
	담배 1갑 (말보로 라이트)	1,500
	햄버거 (맥도날드 빅맥)	1,900
	김치찌개 1인분	5,000
의료비	의료보험료 (4인가족, 치과제외 Full Cover, 1년)	4,000,00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40,00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O, 몸살감기 내과초진)	4,000
차량관련	중형승용차 (2000cc 신차, 오토, 에어컨포함 기본사양)	14,150,000
	무연휘발유 1L	582
	자동차 등록비	240,000
	자동차보험료 의무(2000cc신차,운전경력10년,대인/대물커버, 1년)	500,000
교통비	도심 1시간 주차료	1,200
	지하철 기본요금 (1구간)	400~450
	시내버스 기본요금	400
	택시 기본요금	200
통신	시내전화 요금 (3분)	114
	국제전화 요금 (3분, 한국으로 걸 때)	597
	휴대전화 요금 (월표준 1분)	220
	인터넷 월사용료 (ADSL 기준)	36,000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 (15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975,000
교육	외국인학교 초등 1년 수업료 (중상급)	8,102,880
	외국인학교 중등 1년 수업료 (중상급)	8,102,880
	외국인학교 고등 1년 수업료 (중상급)	8,102,880
숙박	특급호텔(5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240,000
	중급호텔(3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76,000
임금/노무	대졸 초임 (중상급 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 초임 월급여)	800,000
	생산직 초임 (학력무관 월급여 초임)	250,000
	매니저급 급여 (인사담당 5년 경력 과장급 월급여)	1,100,000
	주당 법정근무시간	45
	출산휴가일수	126
	연간 국경일수	16
	주5일 근무 여부	5일 근무
기타	드라이크리닝 (정장 1벌 기준)	4,000

3. 바이어 발굴

바이어 발굴 시 국내 기업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DB는 현지 산업협회(www.ccs.cl)나 유관 기관에서 발간한 업종별 디렉토리를 활용하는 것이지만, 칠레에는 영문 디렉토리나 관련 웹사이트가 거의 없어 스페인어를 구사하지 못할 경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KOTRA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료 조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가.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1) 책자·디렉토리

- Directorio Industrial de Chile(칠레산업별 업체디렉토리)
 - 분야별 업체리스트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책자는 110달러, CD는 50달러 정도 가격이다. 칠레상공연합회(www.sofofa.cl)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다.
- Directorio Nacional Empresas y Ejecutivos
 - iTV사에서 매년 정기 발행하는 디렉토리로 칠레 주요 업체 및 담당자 연락처가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 Las Amarillas de Publiguias(www.amrillas.cl)
 - CTC Chile사가 무료로 배포하는 업종별 Yellow Page 이다.
- Directorio Forestal de Chile
 - 2년마다 발행되며 칠레 산림 현황, 생산 제품, 관련업체들에 대한 정보 자세하게 수록된다.
- Directorio de la Salud en Chile
 - 칠레 건강 관련 산업에 관한 정보 및 생산 제품에 대한 소개가 수록되어 있다.
- Directorio de Acuicultura y Pesca de Chile
 - 매년 발행되며 칠레 수산업 부문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관련 업체들의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다.

2) 박람회 참가를 통한 바이어 발굴

칠레는 대규모 국제 박람회가 많지는 않으나, 칠레 유망성장산업과 관련된 전문전시회 참가 시 칠레 및 인근국 바이어 발굴이 효율적이다. 한국기업이 참가할 만한 주요 박람회로는 광업박람회, 건설박람회, 항공박람회, 해양박람회 등이다.

- 광업박람회(EXPOMIN)
 - 격년제로 실시되며 광산기계, 소모품, 트럭, 각종 공구, 소모품, 관련 서비스가 전시 된다. 중남미 최대 규모의 광업박람회로 인근국 바이어들도 대거 참여하여, 기간 중에는 산티아고 시내의 호텔이 모두 찰 정도로 관련 업계에서는 알아주는 박람회이다. 광산업관련 제품을 칠레뿐 아니라 중남미 전역의 바이어에게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 www.expomin.cl

- 항공우주산업박람회(FIDAE)
 - 격년제로 실시되며 항공우주산업 관련 전반적인 기술, 제품, 장비를 전시한다. 광업 박람회와 더불어 칠레 주요 박람회로 꼽힌다.
 - www.fidae.cl
- 건축, 건설박람회(EDIFICA – Expo Hormigon ICH)
 - 매년 실시되며 건축, 건설 관련 장비, 기계/기술, 서비스/건축자재, 소모품이 전시된다.
 - www.edifica.cl

□ 전시회 일정은 www.fisa.cl 사이트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나. 온라인을 통한 거래선 발굴

- www.chilenet.cl
 - 산업분야별 기업 디렉토리로 각 기업의 전화, 팩스, 홈페이지, 종업원수, 수출입금액, 수출입품목 등의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 www.chilewindows.com
 - 산업별, 도시별 업체 검색이 매우 용이하다.
- www.salmonchile.cl
 - 칠레 연어 생산 회사들의 모임으로 연어 생산 및 수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www.chileinfo.cl
 - Prochile(수출진흥기관)이 운영하며 분야별 수출업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품목 또는 HS 코드로 품목별 수출업체를 알 수 있으며 수출액, 수출대상국의 정보를 제공한다.
- www.buykorea.org
 - 칠레바이어들의 한국과의 거래선 발굴요청 인콰이어리는 바이코리아 사이트에 수시로 게재되고 있다. 또는 산티아고 KBC 홈페이지 인콰이어리 정보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www.lexisnexis.cl
 - 회사고유번호, 원산지, 수출입동향, 경쟁업체, 바이어 명단 등의 검색이 가능하다. (유료, 스페인어 전용)
- www.amarilla.cl
 - 품목별, 회사별, 상표별 검색이 매우 용이하다.
- www.blancas.cl
 - 회사명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 바이어 발굴 대행 유료서비스

KOTRA 해외 KBC에서는 해당 품목의 바이어 발굴 및 관심도를 조사하여 송부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KOTRA 본사에 “바이어 발굴 조사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칠레는 중남미 주변국과 비교하여 기업의 투명성 및 바이어들의 질적 수준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국내 기업의 단독 바이어 발굴 조사 수행 시 사기 및 관련 피해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바이어와의 심도 있는 커뮤니케이션 및 관련 기관을 통한 신용조사 수행이 필수 이다.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비즈니스 에티켓

1) 약속

기업이나 기관 방문 시 사전약속은 필수이며 연락 없이 무작정 찾아가 담당자와의 면담을 요청하는 것은 큰 실례이다. 뿐만 아니라 사전 약속이 컨펌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방문 전일 또는 당일에 다시 한 번 연락해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문 약속을 잡을 때 대부분 비서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칠레에서도 비서들과 원만한 관계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비서의 기분을 상하게 할 경우 상급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경로가 원천봉쇄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12 월 3 일은 비서의 날로, 칠레 기업들은 거래처의 비서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꽃이나 작은 선물을 돌리기도 한다.

칠레 비즈니스인들은 일반인에 비해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지만, 일부 바이어들은 전형적인 남미 기질을 드러내 약속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다가 계속 전화를 걸면 그때서야 억지 핑계를 대면서 나오지 못하겠노라고 답하기도 한다. 전화를 고의적으로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2) 식사

칠레인들은 특별히 기피하는 음식이 없으므로 메뉴 선정 시 개인의 식성 이외에 문화적인 요인을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대신 대표적인 와인 산지답게 식사 시간에 와인이 빠지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손님을 대접할 경우에는 반드시 와인을 준비하도록 한다. 칠레에서 와인은 물이나 음료수처럼 흔한 개념이므로 고가 제품을 선택할 필요는 없으나, 대신 칠레산 와인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바이어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한국에 칠레산 와인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는 이야기나 부산 APEC 정상회담 때 칠레산 와인이 건배주로 사용된 일화 등의 이야깃거리는 식사시간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다.

점심시간은 일반적으로 1~3 시 정도이며, 대부분의 식당이 오후 1 시부터 손님을 받기 시작해서 4 시경 영업을 마쳤다가 오후 7 시 30 분 정도 되면 저녁영업을 시작한다. 저녁 식사는 보통 오후 9~10 시에 시작된다. 칠레인들은 식전주-전식-메인요리-후식 순서로 천천히 식사를 하고, 저녁식사의 경우 특히 2 시간 이상에 걸쳐서 천천히 먹는다고 생각해야 한다.

3) 선물

2008 년 칠레의 국가 청렴도는 세계 23 위(우리나라 40 위)로 중남미 국가 중 공무원 부패도가 가장 낮다. 관공서 민원처리 과정에서 뇌물관행이 거의 없어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부적절한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려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보는 수가 있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는 정도를 밝히, 일이 마무리되고 난 후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작은 선물을 한다면 개인적인 친분을 맺게 되어 향후 업무 추진 시 인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도 하다.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해서는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핸드폰 줄, 액정클리너 같은 물건은 값도 저렴하고 출장 시 휴대가 간편하면서도 칠레에서는 흔하지 않은 물건이라 선물을 받으면 좋아한다. 인삼 관련 제품이나 자개로 된 명함집 같은 선물도 매우 좋아하지만, 이러한 선물은 고가이므로 처음 만날 때 선물하기보다는 거래가 무르익어 가는 단계나 개인적인 친분이 형성되었을 때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4) 인사

남성은 악수를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사법이며, 친해질 경우 등을 살짝 두드리면서 하는 가벼운 포옹도 가능하다. 여성과 인사할 때는 가볍게 포옹을 하며 뺨을 맞대는 것이 일반적인 인사법이다. 처음 만나는 동양인에게는 문화 차이를 고려해 악수를 청하기도 하나, 칠레 여성이 이러한 인사법을 청했는데 피하면서 손만 내밀 경우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다소 어색하더라도 현지식으로 가볍게 볼에 인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상대방을 불필요할 정도로 세게 끌어안거나 정말 볼에 입을 맞출 경우 실례가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호칭은 남자의 경우 성 앞에 세뇨르(Sr.), 여성의 경우 세뇨리따(Srta.)를 붙이면 된다. 기혼여성으로 생각하여 세뇨라(Sra.)라고 했는데 미혼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지만, 세뇨리따의 경우 원래 미혼여성을 지칭하는 말이나 기혼 여성에게 세뇨리따라고 부르더라도 크게 실례가 되지 않는다.

5) 복장

대기업 사무직의 경우는 근무 시 정장을 하지만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나 중소기업의 경우 노타이, 면바지 차림의 편안한 복장으로 근무하는 편이다. 중대한 미팅이나 공식 행사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상담을 나가는 경우에도 편안한 차림새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인 문화가 그러하므로 상대방이 상담 약속에 정장을 하고 오지 않았다고 해서 불쾌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방의 문화이고, 처음 바이어를 만나는 자리에는 가급적이면 정장 차림으로 나가서 깔끔한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좋다. 정부부처나 기관, 대기업을 방문할 때나 공식 행사에는 칠레인들도 차림새에 매우 신경을 써서 양복에 넥타이를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문화적 금기사항

칠레인과 대화할 때 가급적 정치 이야기를 삼가해야 한다. 칠레는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공산주의 정권이 평화적으로 들어선 최초의 국가이지만 이후 피노체트에 의해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장기간의 군부독재 정권이 들어섰다.

우리나라에서는 숙청, 민간인 학살, 부패권력, 군사독재 등 피노체트의 부정적인 면이 주로 부각되어 있고, 피노체트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망명을 거부하고 자살을 택한 공산주의자 아옌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거나 애뜻한 향수를 갖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피노체트 집권 후 칠레가 자유 시장경제 정책 수행을 통해 안정적 경제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칠레인(주로 공산주의 반대론자)들도 많이 있고, 개인의 평가가 많이 엇갈리므로 상대방에게 피노체트에 대한 평가를 묻지 않는 것이 좋다. 무거운 대화주제인데다가, 정확한 지식이나 칠레 현대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설βολ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반적으로 칠레인의 피부색은 밝은 톤이며, 흑인과의 혼혈은 거의 없다. 칠레에 처음 오는 출장자들이 중미지역의 몰라토(흑인과 백인의 혼혈)를 연상하고 칠레에 왔다가 흑인이 하나도 없다면 신기해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칠레인은 대부분 원주민(마푸체)과 백인 간의 혼혈이 대부분이며, 순수 백인은 드물다. 하지만 칠레인들은 원주민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자신에게 원주민의 피가 섞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따라서 바이어와 상담할 때 상대방이 혼혈같아 보인다고 해서 메스티소(원주민과 백인의 혼혈)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매우 불쾌해 할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란다.

다. 상담·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

칠레는 인구 약 1,600 만의 비교적 내수시장이 협소한 국가로 소량 다품종 주문이 보편적이다. 한국 기업과 상담이나 거래 경험이 있는 칠레 바이어들에 따르면 제품을 구매하고 싶기는 하지만 한국 수출업체에서 칠레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높은 기준의 최소 주문 수량을 계약 조건으로 제시해서 상담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첫 거래 규모가 작다고 실망하지 말고 좋은 제품을 공급하다 보면 거래물량을 점점 늘려갈 수 있을 것이다.

칠레는 40 여 개국과 FTA 를 맺고 있는 완전 개방 자유무역국가로 경쟁이 치열하다. 따라서 바이어들은 다른 업체와 같은 제품을 가지고 가격 경쟁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고 싶어 하며, 처음부터 독점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원활한 수출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바이어의 제품 유통능력, 대고객 서비스 능력 등 사전 검증을 반드시 거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칠레에서 만났을 때는 당장이라도 주문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귀국하고 보니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당황하지 말자. 귀국하는 즉시 안부인사와 함께 상담 내용 요약, 바이어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추가 정보 등을 메일, 팩스 등으로 송부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일단 자료를 보낸 후에는 1~2 주 정도 바이어가 검토할 시간을 주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자료를 보내자마자 하루가 멀다 하고 바이어의 답변이나 결정을 재촉하는 한국 기업의 열성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기초적이면서도 한국 업체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로는 e-메일 계정의 발송자명 설정을 들 수 있다. 바이어로부터 응답이 오지 않는다면 KBC 로 바이어가 메일을 받았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바이어를 접촉해 보면 대부분 메일을 받지 못했다고 답한다. 이는 메일 발송자 이름이 한글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바이어의 메일박스에는 발신자명에 한글 이름대신 “???”라고 표시되므로 이를 스팸으로 간주하여 읽지도 않고 바로 삭제해 버리기 때문이다. 메일 계정의 개인정보 설정 또는 기본 정보 수정에서 발신자명 변경이 가능하니 반드시 메일 발신자 정보에서 이름을 영문으로 바꾸어 두자. 가급적 바이어가 알아보기 쉽게 개인 명의보다는 회사명으로 또는 회사명과 개인 이름을 병기하는 것이 좋다.

칠레인들은 지리적으로 고립돼 있어 외국어에 특히 약하다. 또한 다른 스페인어 국가들에 비해 말도 빠르고, 발음하는 법도 조금 달라 애로 사항이 많다. 따라서 상담 시에는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하는 통역사를 대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부득이 영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칠레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경제규모가 작고 기술수준도 취약하지만, 중남미 최고의 IT 강국, 정치/경제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이 매우 강하며, 중남미의 유럽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칠레인과 대화를 이끌어 나갈 때 칠레를 어느 중남미 국가로 일반화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 몹시 불쾌해 하며, 더 이상 대화를 진전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가. 현지 정보 부족

한국기업들에게 중남미 시장의 이미지는 정치경제적 불안, 높은 범죄율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대부분인 관계로 쉽사리 진출결정을 못할 뿐만 아니라 진출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현지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여 비즈니스에 큰 어려움을 겪기 십상이다. 뿐만 아니라 어렵게 현지의 건설프로젝트를 수주했다거나 매력적으로 보이는 투자기회가 왔을 때, 현지 실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주저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수출지원 기관에서 생산하는 정확한 정보 확인 및 실질 거래 시 유용한 KOTRA 시장정보 및 수출보험공사 상품을 활용,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진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나. 스페인어 구사 필수

칠레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자유로이 구사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려우며, 영어 구사 인력 채용은 더욱 어렵다. 기업체 홈페이지도 대부분 스페인어 버전만 지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외국어 구사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우리 중소기업의 경우 현지 바이어 발굴 과정 및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고충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진출 계획 시 스페인어 카탈로그(프린트물 또는 PDF파일) 구비 및 간단한 스페인어 표현 및 비즈니스 스페인어에 대한 지식 축적이 요구된다.

다. 늦은 업무처리

칠레가 다른 주변 국가에 비해 행정절차의 시스템화 수준이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빨리빨리” 근성 때문에 칠레시장에 진출할 경우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 칠레에서 바이어와 약속한 내용에 대해 한국에 돌아가 확인 메일을 보내면 감감 무소식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국업체의 불만을 확인하고 현지 바이어에게 연락해 보면 한국 업체에서 너무 재촉한다며 불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칠레는 의사결정과 행정절차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리므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

라. 한국어 인력 부족

한국기업의 칠레시장 진출 시 가장 큰 걸림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어 및 문화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은 현지 진출 시 본사직원과 현지인 직원과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교민 인력을 활용코자 하나 현재 칠레 내 한국인 교민 약 2000명 중 실제 고용 가능한 2~30대 인력이 극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을 비롯한 기 진출업체 및 신규 진출희망 업체들의 한국어 인력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며 실제로 아르헨티나 등 주변국에서 교민인력을 채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칠레 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의 경우 국내에서 스페인어 구사 인력을 확보하여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이견산업- FTA 이용, 중남미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

국내 목재가공업체인 이견산업의 칠레 투자법인인 이견 Lautaro 사는 일찍이 칠레에 진출하여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원을 확보하였으며, 칠레를 제조기지로 삼아 미국, 유럽, 멕시코 등지의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이견산업은 Lautaro 사 인수 후 설비 개선과 증설을 계속하며 공격적인 증산정책을 펴 1997 년 칠레진출 4 년 만에 합판업계 3 위로 올라섰다. 그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금년 합판 제조규모는 한국 본사의 생산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견산업은 국내 목재산업이 수입원목에만 의존하고 있던 1980 년대 중반부터 장기적인 국외 원목개발 및 해외 생산기지 진출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여 원자재난 가중으로 국내 목재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도 큰 타격없이 발전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견 Lautaro 는 1998 년 한국이 IMF 를 맞으면서 제품 주 구매원이었던 본사와의 거래가 급감하여 잠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제 3 국으로의 수출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신규 거래선을 발굴하여 한국 수출 일변도를 탈피함으로써 위기를 돌파했으며, 한국이 IMF 를 극복한 이후에도 대한 수출보다는 미국, 멕시코, 유럽시장 공략에 주력하고 있다. 칠레가 전 세계 48 개국과 FTA 를 체결하고 있어 주요 수출국에 무관세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는 점은 이견 Lautaro 사의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이 되기도 했다.

최근 미국의 서브 프라임 위기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수요가 급감해 전반적으로 목재 가공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기는 하나 다시 한 번 신시장 개척으로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A사 - 칠레 바이어 특성 파악 미흡으로 시장진출 실패

2006년 칠레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A사는 칠레 M사와 거래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수출 확대를 위한 제품라인 다양화를 위해 현지 바이어와의 접촉을 늘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제품 품질보다는 가격을 중시하는 칠레 바이어에 대한 특성 파악 미흡으로 높은 품질에도 불구하고 현지 바이어와의 거래가 1년 동안 없었으며 18개월간의 마케팅을 통해 어렵사리 약 9,000달러에 달하는 초기 오더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고무된 A사는 칠레 바이어와의 거래량 확대를 위해 현지 미팅을 진행하고자 출장자를 파견하였으며 출장자는 현지 바이어와의 독점계약 체결 약속 및 저렴한 납품가를 제시하며 상담을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이끌어내었다.

그러나 출장자가 돌아간 후 바이어와의 커뮤니케이션 중에 동 출장자가 제시한 가격 및 독점권 계약 건은 회사 방침이 아니었으며 실제 출장을 온 사람 역시 동 제품과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제품라인 담당자였음이 밝혀져 바이어는 물론 A사도 매우 당황하였다.

그러나 칠레 바이어는 취급 품목담당자가 아니더라도 D사를 대표하여 칠레를 방문한 것이니 이제껏 진행된 상담내용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동 제시사항에 대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거래관계를 끊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그러나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제품을 납품할 수 없었던 A사는 결국 칠레 바이어에게 신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납품하던 기존 제품 수출길이 막히는 결과를 감수해야만 했다. 여전히 국내기업은 칠레 시장 수출을 희망하고 있으나 한 번 잃은 신뢰를 회복하는데 긴 시간이 소요되는 칠레 바이어의 특징상 당분간 동일바이어는 물론 기타 유사 바이어와의 거래 성사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칠레인들은 좋다, 싫다 분명하게 말하기보다는 흥미롭군요, 괜찮네요~ 등 애매모호한 대답을 해서 한국을 비롯한 동양인들과의 거래에서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인이 진정으로 관심이 있거나 구매 의사가 있을 경우 독점권 또는 정확한 수량의 구매의사를 밝히며 상대방도 실제 관심이 있을 경우 그렇게 하길 원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칠레인들과의 거래상담에서는 가격 및 독점권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말과 행동이 다를 경우 신뢰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 칠레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은 반드시 이러한 칠레 바이어 특성을 숙지하고 이들과의 거래 상담 시 적절한 레벨의 담당자 파견, 가격 및 거래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마련 등이 필요하며 기분에 따른 즉흥적인 결정은 금물이다.

7. 이주정착 가이드

가. 집구하기

칠레에서는 주거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은행 계좌 개설, 운전면허증 발급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집을 정하는 것이 현지 정착 최우선 과제이다.

2008년도 건설 붐으로 중고급 아파트들 대거 건설되면서 주택 공급은 원활한 편이나 외국인의 경우 임차료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지하철 및 대중 교통 근접 지역은 임차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지 주택 임차는 보통 중개업체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있고 보통 월세의 1/2을 중개료로 지불해야 한다. (나머지 1/2은 임차인이 부담)

집 계약 시 계약서 유첨물로 인벤토리(집의 상태를 기록한 문서로 경우에 따라 사진도 포함)가 포함되며 통상 1개월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현재 한국 지상사원들이 주로 살고 있는 곳은 Las Condes, Vitacura, Lo Barnechea 지역이다. 과거에는 Las Condes, Vitacura 지역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미국인 학교인 Nido de Aguila가 위치한 Lo Barnechea 지역에 아파트 및 고급 주택단지가 많이 들어서면서 자녀의 통학에 편리한 이 지역으로 이사하는 한국인이 증가하고 있다. 아이를 둔 가정의 경우 아파트보다 주택을 선호하는 편이며, 치안 유지를 위해 콘도미니엄 형식으로 된 단지형 주택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칠레 거주 외국인 증가, 달러화 약세 등으로 집값이 크게 상승하였다.

주택 임차 시에는 임차료에 관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나. 행정절차

최초 입국 시 보통 1년의 임시거주비자를 받는다. 비자 발급 후 30일 이내에 경찰서의 외국인 관리국(Policia Internacional)에 가서 신고하고 외국인 등록을 한 후 등기소(Servicio de Registro Civil e Identificación)에 신청하면 외국인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입국 후 1년이 되면 비자 만기일 30일 전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비자를 갱신해야 한다.

- 여권 원본 및 사진 있는 부분, 비자가 있는 부분 사본
- 외국인등록증 원본 및 사본
- 고용계약서 사본
- 신원증명서
- 마지막 3개월간의 개인 소득세 납부 증명서
- 위임장
- 가족증명서, 자녀 출생증명서
- 기타 이민국 요구서류

서류가 이상 없이 접수되면 외국인등록증 이면에 수속 중이란 뜻의 En Tramite 라는 도장을 찍어주며 새로운 비자를 받을 때까지 (통상 2~3개월 소요) 비자를 대신한다.

다. 계좌 개설

주민등록증, 비자, 집 등의 문제가 해결되면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칠레에서 영업하고 있는 은행들은 아직도 상당히 고압적 자세를 갖고 있으며, 계좌 개설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한다. 특히, 회사원인 경우 회사원임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회사에서 확인한 급여명세서 등 보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좌 개설 시에는 보통 은행에서 의뢰한 신용 정보회사 직원이 신청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실제 거주여부까지 확인한다.

칠레에서는 개인수표 사용이 보편적이며 은행계좌 신청 시 수표책을 신청,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수표는 미 달러화, 페소화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다. 또, 요즘에는 현금카드도 많이 사용하므로 같이 함께 신청·발급받는 것이 좋다. 은행 계좌를 개설하면 매달 은행에서 일정액의 계좌유지 수수료를 인출해 가는데, 이는 한국에 비해 비싼 편이다. 계좌 유지 수수료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수수료율이 낮다.

달러 계좌를 개설하려면 페소화 계좌를 개설한 후 일정기간(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개월 이상)이 지나야 한다. 그러나 은행 계좌개설 담당자와 잘 협의만 하면 동시에 개설해주므로 설득해 보는 것이 좋다.

칠레에서는 수표나 현금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매번 약 151페소(약 3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대신 ATM기기를 이용한 타행 출금 시에도 세금이 외에 별도 은행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라. 전화

칠레의 경우 유선전화, 인터넷 등은 신청할 경우 대략 1주일 내에 설치된다. (통신사에 따라 소요기간 상이) 다만, 신분증이 발급된 이후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국제전화의 경우는 할인 경쟁이 치열하므로 특정 국제전화 서비스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할 경우 할인요금 적용이 가능하다. 한국의 인터넷전화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내 계좌로 통신비를 결제하면서(1개월에 약 46불 선) 한국과 미국으로는 무료로 무제한 통화(단 1회 최고 13분까지 통화 가능. 13분 초과 후 재다이얼로 계속 통화 연장 가능)를 할 수 있는 상품들도 있으므로 한국과의 통화량이 많을 경우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휴대폰은 선불제(Prepago)와 후불제(Plan) 두 종류가 있으며, 선불제의 경우 기계 값을 지불하고 전화기를 구입한 후 SIM카드에 요금을 충전해서 사용하므로 언제든지 개통이 가능하나 후불제의 경우 신분증, 은행 구좌 보유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개인 명의의 수표 사본 등)를 제시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선불제의 요금이 후불제에 비해 더 비싼 편이지만, 선불제 사용자가 더 많다. GSM방식으로 중남미지역에서 이동할 경우 자동 로밍되며 요금이 부과되므로, 이용을 원치 않을 경우 핸드폰을 꺼두면 된다.

마. 비품구입

칠레는 제조업기반이 취약한 관계로 대부분의 공산품이 수입되고 있다. 중국산 제품의 수입 증가로 제품 평균 가격이 많이 낮아지기는 했으나, 고급품의 경우 수요가 많고 늘 재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전자제품·자동차 등은 인근국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칠레에는 아직 팩토리 아울렛, 창고형 할인매장 등의 유통형태가 발달하지 않아 상품구입은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 전문점 등을 통해 한다. 가전제품의 경우 동일한 모델이라도 백화점마다 가격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꼼꼼히 가격비교를 한 후 구입하는 것이 좋다.

비품 구입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은 가구 구입이다. 주요 사무용가구 브랜드인 Bash, Fernando Meier 등의 제품 가격은 한국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비싼 편이다. 그러므로 사무용 가구 소요량이 많고 고급 가구 설치를 희망할 경우 한국에서 비품을 구입해서 발송하는 비용(운송, 부가세, 통관비 포함)과 현지 구입 가격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San Pablo 거리에 가면 중저가 사무용가구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밀집해 있다.

바. 자동차 구입

칠레는 환경오염 문제로 중고차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고차 시세가 타국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므로 신차를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귀국 시 판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름 값이 비싼 편으로 1,600cc 이하의 소형차가 선호되며, 중대형에 비해 이들 차량의 중고차 시세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 한국산 자동차의 비율이 20% 이상으로 길거리에서 현대, 기아 자동차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산티아고 시내에는 도로사정이 비교적 좋은 편이지만, 산악지형이 많고 지방으로 가면 도로사정이 좋지 않으므로 잦은 지방 출장이나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4x4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사. 자녀 교육여건

칠레의 주요 외국인 학교는 Nido de Aguilas로 주재원 자녀 대부분이 Nido de Aguilas 에 다니고 있다. Nido de Aguilas(www.nido.cl)는 아메리칸 스쿨로 졸업생들이 아이비 리그를 포함한 미국 대학으로도 많이 진학하고 있지만 학비가 매우 비싼 편이다. (연 1만2,000달러 수준, 기부금 별도)

칠레의 교육제도는 유아(치)원(0~5세), 초등학교(6~13세), 중고등학교(14~17세), 대학교 등으로 구성되며, 진학률은 유아(치)원 81%, 초등학교 100%, 중고등학교 75%, 대학교 50% 등으로 문맹률이 5%에 불과하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공립의 경우)이다. 그러나 공교육 수준이 높지는 않다.

칠레의 유명 대학으로는 국립대학인 Universidad de Chile와 Universidad Catolica를 꼽을 수 있다. 2개 명문 대학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대학입학이 용이한 편이나 수업과정이 엄격하고 논문 심사가 까다로워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료 후 논문 통과까지 1~2년의 추가 기간을 할애하고 있다.

아. 병원

산티아고에서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은 Clinica las Condes (www.clinicalascondes.cl)와 Clinica Alemana(www.alemana.cl)로 최첨단 의료장비, 고급 의료진, 선진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진료비가 매우 비싸다.

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주거래 병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Plan별로 지정 병원과 할인폭, 의료보험료가 달라진다.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회원카드를 발급해 주며, 병원 예약 시 자신이 가입한 의료보험사와 계약한(칠레에서는 ‘콘베니오가 있다’고 표현) 의사에게 진료를 신청해야 보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원에 처음 가면 보험 회원카드를 제시하고 지문을 등록해야 하므로 보험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계약은 병원 진료비 할인에 관한 사항이며, 약품 구입 시 할인을 위해서는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모든 약품 구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의사 처방전에 따른 구입에 대해 특정 약국에서 70~90%의 약값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의료보험사로는 Banmedica, ING, Colmena 등이 있다.

자. 국외여행

칠레에서 자녀를 동반하고 국외여행을 할 경우 대사관에서 ‘가족증명서’를 발급받아 지참할 것을 권한다. 미성년 자녀 동반 출국 시 이민국에서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요구하여 이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출국을 금지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가족증명서’는 주 칠레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발급하며 비용은 무료이다. 가족 구성원 전원의 여권번호를 알고 가야 한다.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한국의 주민등록 등본) 등을 준비해 가면 발급이 빠르고, 증빙이 없을 경우 호주의 주민번호, 호적지 등을 제시할 수 있다. 호주인 아버지를 제외하고 어머니가 자녀를 동반하고 출국할 경우 ‘호주가 자녀를 데리고 여행할 책임을 위임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위임장에 공증을 받아 지참해야 한다. 최근 출입국 사무소에서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출국자 가족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우므로 항공 스케줄을 변경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1) 기후특성

남북으로 4,230Km나 뻗어있는 칠레는 위도에 따라 아열대, 사막, 지중해성, 온대, 한랭 기후 등 다양한 기후를 나타내며, 안데스산맥과 훔볼트 한류가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 칠레 북부는 사막 및 아열대성 기후로 연평균 기온 16℃를 유지하며, 남부지역은 한랭 기후로

강우량이 풍부하며 춥고 장마진 기후가 특징이다. 중부지역에 위치한 수도 산티아고는 지중해성 사막기후로 사계절이 있으며, 여름에는 고온 건조, 겨울에는 온난 다습의 특성을 가진다.

여름철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으나, 겨울(6, 7, 8월)에 집중적으로 강수량이 기록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집중 호우의 수준은 아니며 일반적으로는 우산 없이도 다닐 수 있을 만한 수준이다.) 또한, 겨울에는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도 하고, 하루 기온 차가 20도 이상 벌어지기도 하여 일교차가 상당히 심하다. 산티아고 지역은 눈이 거의 내리지 않지만 체감 온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산티아고- 해발 540m 연중 기후표

(단위: °C)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최고	29	29	27	23	18	14	15	17	19	22	26	28
최저	12	11	9	7	5	3	3	4	6	7	9	11

2) 출장 시 추천복장

□ 일반 옷차림

비즈니스 상담 시에는 정장 차림이 좋지만, 평소에는 계절 특성에 맞는 간편한 복장을 하고 다니면 된다. 칠레인들은 옷차림이 수수한 편이며, 요란한 색상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계절적 차이로 인해 북반구에서 유행했던 옷들이 한 시즌 늦게 유행하는 경향이 있다. 겨울철 흐린 날을 제외하면 일년 내내 햇빛이 강한 편이므로 자외선 차단제와 선글라스는 항상 휴대하는 것이 좋다.

산티아고는 동으로는 안데스산맥, 서로는 해안산맥이 남북으로 길게 가로막고 있는 분지 지형이어서 공해가 심해 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나쁜 도시로 꼽힌다. 6~11 월 늦가을에서 초봄 사이에는 차량운행이 제한(지정 번호 운행 휴무)될 정도로 공해가 심해 공해주의보, 경보가 종종 발동되므로 기관지가 약한 경우 마스크를 준비한다.

□ 겨울

칠레의 겨울은 6~8월로 한국과는 계절이 정반대이다. 겨울 평균 산티아고 기온은 최고 15~19도, 최저 3~6도이다.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일은 드물지만 산맥에서 불어 오는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실제 온도보다 훨씬 낮다. 따라서 겨울에 출장 시(산티아고)에는 한국의 겨울과 마찬가지로 두껍고 따뜻한 옷을 준비해 오는 것을 권장한다.

□ 여름

칠레의 여름은 한국의 여름과는 달리 건조하다. 그러나 햇볕이 상당히 강렬하고 따갑기 때문에 피부가 쉽게 그을리며, 심한 햇빛으로 인해 어지러움과 두통을 느끼는 경우도 빈번하다. 따라서 야외 활동 시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크림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칠레 여름은 습하지 않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도 상당히 시원하고, 또한 일교차 차이가 심해 아침, 저녁에는 날씨가 선선하다. 따라서 복장은 시원한 여름 정장을 추천하며 이와 더불어 기온이 떨어지는 아침, 저녁을 대비해 긴 소매옷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

나. 시차·근무시간

1) 시 차

한국과는 13시간의 시차가 있으나, 여름 서머타임 적용 시(10월 3번째 토요일~3월 3번째 토요일)에는 12시간의 시차가 난다.

2) 근무시간

주5일 근무제이며, 일반 직장 및 관공서 근무시간은 통상적으로 09:00~18:00 이다. 단, 은행의 경우는 09:00~14:00까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토요일에는 휴무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슈퍼, 백화점의 경우 영업시간은 통상 10:00~22:00(백화점은 20:00)이며, 계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요일, 공휴일에도 대부분의 상점이 영업을 하지만, 부활절, 근로자의 날, 크리스마스 등에는 휴무한다.

일반 직장의 경우 점심시간은 보통 1시부터 2시반(혹은 3시)까지 이므로 동 시간에는 미팅 약속을 피하는 것이 좋다.

다. 도량형

주요 단위

주요단위	단위
거리, 범위	미터법(mm, cm, km, m ² 등)
무게	킬로법(g, kg, t 등)
온도	섭씨(°C)
전기규격	220V, 50Hz
TV / Video 방식	NTSC/VHS

1) 전기 규격

전기규격은 우리 나라와 동일한 220볼트이지만 소켓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3개의 다리가 달려 있으며 한국 소켓의 다리보다 가늘다. 따라서 한국에서 들어오는 가전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어댑터를 사용해야 한다. 철물점이나 문방구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한 개당 500페소(한화 1,000원) 정도이다.

대부분의 한국 전기전자제품은 현지에서 사용가능하나, 한국과 Hz가 다른 관계로 민감한 제품은 고장날 가능성도 있다.

2) 숫자 표시

우리나라의 경우 천 단위는(,) 그리고 소수점은(.)로 표시하나, 칠레를 비롯한 남미에서는 반대로 천 단위는(.) 그리고 소수점은 (,)로 표시함을 유의해야 한다.

○ 23,215.08 → 스페인어식 표기 23.215,08

라. 출입국·비자

1) 비자

우리나라는 칠레와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단순 관광 또는 상용 목적으로 단기(90 일 이내) 방문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로 칠레 입국이 가능하다. 단, 취업, 유학, 동거 등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주한 칠레 대사관에서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사전 취득한 후 입국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와 캐나다 시민권자에게는 각 100 달러, 50 달러의 입국세를 징수하고 있다.

사증 면제와 별도로 항공사 데스크에서 체크인할 때 돌아오는 비행기 표가 없으면 탑승을 금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칠레 입국을 위해 경유국(미국, 호주 등)에서 환승 체크인을 할 때 항공사 직원이 돌아오는 비행기 표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귀국편 항공권이 없을 경우 이유와 무관하게 탑승 체크인을 해주지 않는 편이므로 유의해야 하며,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돌아오는 항공권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환불 가능한 편도 항공권을 구매한 후 칠레에 입국하여 취소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 바란다.

2) 비자의 종류

□ 관광(Turista)

관광, 방문목적, 최장 90일까지 부여 1회 연장 가능. 대한민국 국민은 관광 목적으로 방문 시 90일까지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 거주비자(Residente)

- 공무거주(Residente Oficial): 외교관, 공무원 등 공무수행자에게 발급
- 임시거주(Residente Temporario): 상용, 친척 초청, 취재, 종교 등 목적으로 90일 이상 체재 시 부여(지·상사 주재원도 최초 입국 시 1년간 임시거주비자를 받음)
- 유학거주(Residente Estudiante): 유학생에게 발급
- 계약거주(Residente Sujeto a Contrato): 고용계약에 따라 최장 2년까지 발급, 갱신 가능

□ 영주(Permanencia Definitiva)

위에 기술한 거주사증 소지자가 최소 1년 이상 계속 주재국에 거주한 후 신청 시 심사 후 영주사증 발급. 영주권 신청자는 칠레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활동(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3) 주한칠레대사관 연락처

- 주소: 서울시 중구 충무로 1가 25-5번지, 고려 대연각 타워 1801호
- 주한칠레대사관에는 칠레의 수출진흥기관인 Prochile도 함께 입주하고 있음
- 전화번호: 02)779-2610
- FAX: 02)779-2615

4) 주 칠레 대한민국 대사관 연락처

- 주소: Alcantara 74, Las Condes, Santiago, Chile
- 전화번호: (+56 2) 228 4214
- Fax: (+56 2) 206 2355

5) 출입국수속 및 세관신고

입국 시 소정의 입국신청서 및 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히 동식물 및 음식물 반입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예방접종은 불필요하며, 공항세 (tasa de embarque)는 국제선의 경우 미화 30달러이다. 일반적으로 항공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납부하지 않는다.

6) 공항-시내 간 교통편

칠레에 입국 후 산티아고 도심으로 들어오는 방법은 택시, 공항버스, 합승미니버스 TRANSVIP (www.transvip.net) 등이 있다.

공항에서 산티아고 시내로 오는 택시 요금은 일반 택시의 경우 약 1만2,000페소(한화 25,000원)수준이며 교통이 혼잡하지 않을 경우 25~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단, 산티아고 택시는 거의 무보험이며, 스페인어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종종 바가지를 씌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고속도로(Costanera)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40분 이상 소요되므로, 고속도로 이용을 요청해야 한다. 일반 택시요금 1만2천 페소는 고속도로 이용을 고려한 가격이므로 추가 비용 부담을 요구할 경우 거절할 수 있다.

공항택시(Taxi Oficial)의 경우 약 1만5천 페소(한화 약 30,000원) 수준으로 일반 택시에 비해 다소 비싸지만 비교적 택시 상태가 양호한 편이며, 안전성이 더 높다. 출국장 입구에 있는 공항택시 카운터에 미리 요금을 지불한 후 공항 청사 출구에서 바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TRANSVIP 합승미니버스는 시내까지 6~7 달러 정도를 받는다. 여러 명이 타고 오기 때문에 사람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러 숙소를 경유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일반 대중 교통으로는 공항에서 PAJARITO 지하철 역까지 운행하는 공항버스가 있는데 2~3달러로 저렴하다. PAJARITO역에서 시내까지는 1호선을 타고 들어오면 된다.

마. 통화·환전

1) 통화단위

화폐단위는 페소(PESO)이며, \$로 표시하므로 미 달러(US\$)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만, 1만, 5천, 2천, 1천 페소권 지폐가 있으며, 주화로는 500, 100, 50, 10, 5, 1 페소가 있다.

주화지폐**2) 환율**

USD:CLP 환율은 2005년 이후로 국제 구리 가격의 상승으로 점차 하락하여 2008년 미화 1달러당 430페소까지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2008년 말 세계금융위기와 함께 600페소 대까지 급등하였다. 2009년 9월22일 기준 미화 1달러당 칠레페소화 환율은 544페소 수준이며 2009년 2분기부터 530~550페소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3) 환율제도

자유 변동 환율제로 중앙은행이 매일 기준환율을 공시하고 있다. 공식 시장에서 거래 되는 환율은 중앙은행의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은행 간에 합의되며 비공식 시장환율은 정부의 개입없이 외환수급에 의해 외환시세가 결정된다.

칠레에서는 미달러 환율 이외에 매월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UF(Unidad de Fomento) 라는 가상환율을 사용하고 있으며, 부동산계약 등에 동 환율을 적용하고 있다.

4) 환전

환전은 공항, 은행, 환전소, 호텔 등지에서 항상 가능한데, 은행의 경우 09:00~14:00까지만 운영하며, 해당 은행 계좌가 있는 고객에게만 환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내 곳곳에 있는 환전소 “까사 데 캄비오”(Casa de Cambio)에서는 은행 및 호텔, 그리고 공항 환전소보다 유리한 환율을 적용해 준다.

5) 신용카드

호텔, 상가, 식당, 주유소 등 대부분의 장소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나, 카드 복제 위험이 있으므로 카드결제 과정을 지켜 보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이동식 신용카드 단말기가 보급되어 점원이 테이블로 단말기를 가져오면 앉은 자리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할 수 있는 식당도 많이 있다. 칠레는 인터넷 보안환경이 우리나라처럼 발달하지 못해 인증서, 보안키 등의 보호수단이 취약하므로 가급적 인터넷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각종 카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사별로 신용카드 불법 사용 방지를 위한 유료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바. 교통·통신

1) 우리나라와의 교통

한국과 칠레 간에는 아직 직항로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칠레로 오가는 루트는 첫째 미국(LA, 뉴욕)을 거쳐 오는 방법과 둘째 오세아니아(호주/뉴질랜드)를 거쳐 오는 방법, 그리고 셋째 유럽(프랑스, 스페인, 독일)을 거쳐서 브라질을 경유하여 오는 방법 등 3가지 루트가 있으나 주로 LA를 거쳐서 오는 루트가 많이 애용된다.

LA를 거쳐서 오는 경우, 대부분 아시아나 혹은 대한항공을 통해 LA에 도착하여 LA에서 Lan Chile(칠레항공)를 통해 칠레에 입국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LanChile와 LA-산티아고 구간을 코드쉐어하고 있어 KE로 코드를 받을 경우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다. 서울에서 산티아고까지 일괄 체크인이 되지 않으며, 경유국 항공 카운터에서 다시 체크인해야 한다.

주요 취항 항공사로는 LAN, Delta, American Airline, Aeromexico, Iberia, Copa, TACA, Gol 등이 있다.

2) 국내교통

□ 시내 대중 교통

산티아고에는 동서를 잇는 노선과 남북을 잇는 노선 2개 등 현재 5개 노선의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다. 지하철은 깨끗하고 운행간격이 짧아 매우 편하며, 요금은 3등급으로 구분돼 있는데, 학생, 노약자 대상 130페소(한화 260원), 러시아워시간 420페소(840원), 보통시간 380페소(760원)로 차별화되어 있다.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BIP라는 교통카드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카드 가격은 1,100페소(2,200원)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거리 개념이 아니므로 45분 내 외에 환승할 경우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산티아고 시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특정 지점으로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웹사이트를 통해 방법을 검색할 수 있다. www.transantiagoinforma.cl에서 “Planifica tu viaje”라는 메뉴에서 출발지, 목적지, 선호 교통수단 등을 입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해당 목적지에 도착하는 방법을 안내해 준다.

□ 택시

산티아고에는 약 5만 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며 우리나라처럼 손쉽게 거리에서 택시를 잡을 수 있다. 택시요금은 기본요금 200페소(한화 400원)에 주행거리 200 미터(혹은 정체 시간 1분당)당 80, 90, 120, 150페소 등으로 주행 요금을 택시 운전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즉, 택시가 많을 경우에는 80페소, 늦은 밤과 같이 택시가 별로 없는 경우에는 120페소, 150페소 표지를 차창 앞에 붙이고 다닌다. 택시 기사가 주행 요금을 정하는 일반 택시 이 외에도 전화로 택시를 부르는 콜택시(칠레에서는 Radio Taxi)가 있다. 콜택시의 경우 거리에 관계 없이 최저 요금은 1,000 페소 (한화 2,000원)인데, 택시 회사로 전화를 하면 보통 20분 내에 도착한다.

3) 국제통신

민간회사인 Telefonica, Entel Chile, VTR, Compania de Telefonos Manquehue들이 통신 및 전화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고, 중남미 국가 중 비교적 양호한 통신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직통 국제전화, TLC 및 FAX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다.

칠레의 국제전화요금은 상당히 비쌌지만 현재 시장이 개방된 이후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급속히 요금이 인하되고 있다. 보통 국제전화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데, 10분간 서울과 통화할 경우 할인요금(정상요금의 70% 할인) 적용시 약 2,200페소 (4.2달러) 정도 요금이 나온다. 인터넷 전화 업체들이 생기면서 국제전화 요금이 더욱 인하되어 일례로 117(www.117.cl)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한국까지 분당 149페소로, 10분간 통화할 경우 1,490페소(2.8달러)의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통화품질이 일반 업체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다.

국제전화 통화량이 많을 경우 서비스업체와 별도 계약을 통해 유리한 약정요금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현재는 한국의 서비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내요금 수준으로 인터넷 통화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나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47달러 정도의 월정액으로 한국으로 무한정 국제전화를 걸 수 있는 서비스들도 있다. (한국으로 서비스 신청)

한국으로 국제전화를 걸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국제전화 서비스 접속번호+0-82-지역번호-전화번호 순으로 누르면 된다.

예시) 117 캐리어를 이용하여 서울 333-3333으로 전화할 경우 117-0-82-2-333-3333

칠레 출장자들은 호텔의 전화요금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가급적 국제전화카드를 이용 하여 공중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Hablemas 카드를 이용할 경우 2,000페소 (한화 약 4,000원)로 한국과 28분간 통화가 가능하다.

칠레에서 며칠간 머물면서 전화를 사용할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으면 카드 충전식 선불 (Prepago, 뽀레빠고)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저렴한 구형모델의 경우 약 20 달러

선에서 기기 구입이 가능하므로, 한국에서 걸려오는 전화의 수신요금을 고려할 경우 해외 로밍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 선불식 핸드폰 개통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백화점 등에 위치한 3개 이동통신사 대리점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다. 카드식 선불 휴대전화는 한 번 구매해 두면 다음에 카드식 휴대폰이 통용되는 지역에 출장 가서 카드 구입 후 활용할 수도 있다.

□ 전화카드(Hable mas) 이용방법

국제전화카드는 카드 종류에 따라 상이하다. 다음은 요금대비 통화가능시간이 비교적 길고 음질이 깨끗한 전화카드인 “Hable Mas”의 사용방법이다. 2,000 페소(약 4,000원)로 핸드폰 및 일반전화로 28분간 통화할 수 있다.

- ① 검은색 부분을 동전으로 긁어 비밀번호 확인
- ② 사용 전화기 종류에 따라 번호입력
 - 공중전화: 800-364-300
 - 유선전화: 650-5115 / 핸드폰: 02-650-5115
- ③ 비밀번호입력
- ④ 수신자 전화번호 입력
 - 국제 전화 시: 00+국가번호(한국 82)+지역번호+전화번호
 - 칠레 국내 전화 시: 0+지역번호+전화번호

4) 국내통신

□ 유선통신

시장개방에 따라 국제전화요금이 인하되고 있는데 비해 국내 유선통신은 CTC-Telefonica, Entel 등이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비싼 편이다. 통화료는 일반 전화를 사용할 경우, 1분에 15.72페소(인터넷은 6.71페소)이며, 저녁8시 이후에는 할인요금(일반통화: 2.62페소, 인터넷: 1.12페소)이 적용된다.

공중 전화의 경우 가격은 1분에 100페소(유선 전화의 경우) 혹은 200페소(핸드폰의 경우)로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에 속한다.

□ 무선통신

칠레의 무선전화 가입자 수는 2009년 6월 기준으로 약 1,500만 명을 넘어서 보급률이 88.1%에 달했다. 주요 이동통신 업체로는 Movistar(42.9%), Entel PCS(38.5%), Claro(18.5%) 등이 있다. 선불(카드 충전식) 휴대폰과 요금 계약제 가입자 비율은 약 70:30 선이다.

출장자들도 손쉽게 선불식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다.

5) 인터넷 사용환경

칠레는 중남미 국가 중 IT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진 국가로 거론되나, 인터넷 가격은 속도에 비해 상당히 비싼 편이다.

현지 최대업체인 Telefonica에서 제공하는 Speedy 2M(다운로드/업로드-2048kbps/256 kbps) 서비스의 경우 1년 약정 시 월정액이 39,990 페소(약 80달러)이며, 기타 업체의 경우도 비슷한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에서는 케이블TV, 유선 전화, 인터넷을 패키지로 묶어 단일 서비스를 이용할 때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므로, 가정에서도 이러한 패키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 출장자의 인터넷 사용

대부분의 호텔에서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므로 출장자가 개인 노트북을 휴대하고 있을 경우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5성급 호텔에서는 1일 미화 10달러 내외의 인터넷 접속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아파트호텔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가 객실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편이다.

대학교 부근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 PC방이 설치되어 있으며, 시간당 사용료는 600페소(약 1,300원) 수준이다. 아래 한글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프로그램이므로 PC방의 컴퓨터로 조회 및 편집이 불가하며, 급하게 확인해야 하는 문서의 경우 한글 뷰어를 다운로드 받아 조회할 수는 있으나 편집이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현지인들로 가득한 PC방 이용이 선뜻 내키지 않을 경우 산티아고 시내의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무선인터넷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스타벅스에는 인터넷을 즐기고 있는 외국인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다만, PC방보다는 속도가 느리다는 흠이 있다.

커피를 주문하면서 카운터에 인터넷 사용을 요청하면 점원이 무선인터넷 접속 Pin 번호가 적힌 카드를 건네 준다. 단, 노트북에 무선랜 카드가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최신 노트북에는 대부분 무선랜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편이나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6) 특사우편 가격 및 사용방법

한국으로 특사우편물을 발송할 때, 비용이 부담될 경우 수취인이 해당 서비스 업체의 계정(Número de Cuenta - 누메로 데 쿠엔타)을 갖고 있으면 업체에 해당 번호를 알려주고 착불로 발송할 수 있다.

제품이 서류인 경우에는 별도의 통관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나, 상품을 발송할 경우 패킹리스트와 인보이스를 첨부해야 한다.

칠레에서 한국으로 1Kg의 특사우편물을 발송할 경우 업체별 요금은 대략 다음과 같다.

업체명	요금	연락처
FEDEX	약 US\$ 64.61	800-36-3030(칠레 내에서)
DHL	\$53,072 (약 US\$100)	800-800-345(칠레 내에서)
TNT	\$38,258 (약 US\$ 72.18)	56-2-360-5100

주: 2009년 최신자료

주: 규격에 따라 최종가격 상이

사. 호텔/식당

1) 호 텔

산티아고내 호텔은 하얏트, 셰라톤 등 세계적 체인호텔에서 취사가 가능한 아파트형 호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여 선택의 폭이 넓다. 산티아고내 호텔들의 경우 외국인이 요금을 미화로 지불할 경우 부가가치세(19%)를 면제 해 주는 호텔들이 대부분으로 가급적 미화로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유리하다. (여권, 입국 증명서 제시해야 함) 또한 호텔객실 전화사용료가 상당히 비싸므로 국제 전화 이용 시는 전화카드를 구입해서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산티아고에서 장기 체류 시 취사가 가능 하며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 호텔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아래 요금은 인터넷 예약을 통해 최저가를 검색할 경우이므로 실제 요금은 다를 수 있음을 참고 하기 바란다.

산티아고 내 호텔

호텔명	전화+56+2	팩스+56+2	홈페이지 및 e-메일	요금(USD) (일반요금)	비고
Crowne Plaza	638 1042	633 6015	http://www.crownesantiago.cl/sales@crownesantiago.cl	180	조식포함
Sheraton	233 5000	234 1729	http://www.sheraton.cl/pablo.pesce@sheraton.com	265	조식포함
Hyatt	218 1234	218 2513	http://www.hyatt.cl/info@hyatt.cl	300	조식포함
Marriott	426 2000	426 2001	http://marriott.com/reservation	260	조식포함
Plaza del Bosque	498 1800	498 1801	http://www.plazaelbosque.cl/dep.reserva@plazaelbosque.cl	160	조식포함
Hotel Tempo Rent - Apart hotel	231 1608	334 0374	www.temporent.cl/reservas@temporent.cl	98	조식포함 취사가가능

2) 식당

산티아고 내에서는 칠레식 식당은 물론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 체인점, TGIF 등 패밀리 레스토랑 체인점을 비롯하여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인도, 아랍 등 세계 각국의 전통 식당들이 즐비하다. 그러나, 식당 음식값은 국민소득(9,000달러)에 비해 상당히 비싼 편이며, 칠레인들의 음식은 우리 입맛에는 너무 짜거나 달아 안 맞는 경우가 많다. 한국 식당의 경우 한인교포상인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일명 마포초 지구)에 자리잡고 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

식당 명	전화번호	주 소
아리랑(한식)	(56-2)732-4772	Bombero Nuñez 174
감미옥 (한식)	(56-2)735-5689	Sagrado Corazon 371
만 나(한식)	(56-2)735-4367	Rio de Janeiro 330
숙이네(한식)	(56-2)735-8693	Antonia Lopez de Bello 244
가 온(한식)	(56-2)242-0082	Manquehue Sur 674
다리원(중식)	(56-2)732-3150	Antonia Lopez de Bello 173
이씨방(일식)	(56-2)453-1793	Padre Hurtado 1521, Vitacura
두 리(일식)	(56-2)672-0915	Agustina 684
하나비(일식)	(56-2)243-0234	Vitacura 9875

□ 칠레의 주요 전통 음식

Parrillada(고기 모듬 구이)Cazuela de Vacuno/Pollo (쇠고기/닭고기 탕, 우리나라의 삼계탕과 유사함)Empanada (만두)Pastel de Choclo (옥수수 케익)

아. 관공서 관행

칠레의 공무원, 경찰 등은 다른 남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부정부패가 없는 것으로 매우 유명하다. (2008년 국가부패지수 세계 23위/180개국, *참고: 한국 40위)

그러나 원리, 원칙을 중시하는 관공서 관행 및 중남미 사람들 특유의 여유로움과 게으름 때문에 업무 진행 속도가 느릴 때가 많다. 그러나 민원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뇌물 등을 줄 경우 부패없는 칠레 공무원의 특성상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따라서 절대로 매수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참조)

또한 관공서에서는 원칙을 고집하고, 책임 업무 외의 것에 대해서는 일체 설명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일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내심이 필요하다. 공무원에게 사례를 할 때는 사전에 선물 제공 등을 통해 부락을 해서는 안 되며 사후에 감사의 표시로 조그만 선물(포도주, 기념품 등)을 하는 정도 가능하다.

자. 공휴일

2009년도 칠레 법정공휴일			
날짜	요일	휴일명	
1.1	화	신정	Ano Nuevo
4.10~12	금~일	부활절	Semana Santa
5.1	목	노동절	Día del Trabajo
5.21	수	해군의 날	Glorias navales
6.29	일	성 베드로 & 성 바울 축일	San Pedro y San Pablo
7.16	수	성모 카르멘의 날	Nuestra Senora del Carmen
8.15	금~일	성모승천일	Asuncion de la Virgen
9.18	목	독립기념일	Fiestas Patrias
9.19	금	국군의 날	Glorias del Ejercito
10.12	일	인종의 날	Día de la Raza
12.8	화	성모마리아 잉태일	Inmaculada Concepcion
12.11	금	대통령선거일	
12.25	목	성탄절	Navidad

1) 주요 연휴

- Semana Santa(고난주간/부활절): 4월 6일~4월 8일
- Fiestas Patrias(독립기념일 및 국군의 날): 9월 18일~9월 19일

2) 칠레 출장을 피해야 할 날

칠레는 남반구에 위치한 국가이므로 한국과 계절이 정반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북반구 국가들이 7~8월에 휴가시즌을 보내듯이 여름철인 1~2월에 휴가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때가 경제활동 휴면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월에 휴가를 실시하는 기업이 많으므로 가급적 2월에는 출장을 피해야 한다. 일부 레스토랑은 2월 휴가 시즌에 맞춰서 1개월간 휴무하기도 한다.

여름 휴가철 이 외에 출장을 삼가야 할 시기는 부활절 연휴가 있는 4월 3주, 칠레 독립 기념일, 국군의 날 연휴가 있는 9월 중순 등이다.

공식적인 부활절 연휴는 금, 토, 일로 이어지는 주말 3 일뿐이지만, 부활절을 전후로 개인 휴가를 사용하거나 기업 전체가 휴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출장을 피하되, 불가피 하게 출장을 실시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방문 대상 기업의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9 월 18 일은 칠레 독립기념일로 크리스마스와 더불어 현지인들이 가장 성대하게 기념하는 축제 일이다. 또한 이는 19 일 국군의 날까지 연휴로 이어지므로 이 기간 중에도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어렵다.

독립기념일 연휴와 별개로 매년 9 월 11 일에는 대규모 시위가 있으므로 9 월 중순 출장을 삼가는 것이 좋다. 9 월 11 일은 피노체트가 군사혁명으로 아옌데 정권을 몰락시킨 날로 대학생 및 반 피노체트 세력들은 매년 이 날을 기념하여 피노체트 반대시위를 벌이는데, 이 기간 중에 반 피노체트 시위와 무관한 일부 불온세력들이 정치시위를 방자하여 상가를 약탈 하고 폭력을 사용하여 재산·인명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9 월에 출장을 실시할 경우 9 월 10~11 일 사이는 반드시 피할 것을 권장한다.

3) 참고

칠레의 공휴일은 일반 공휴일과 가톨릭계 공휴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공휴일이 당해 화, 수, 목요일에 해당할 경우 그 공휴일이 속한 주의 월요일로 옮겨서 연휴로 사용한다. 하지만 카톨릭계 공휴일은 요일을 옮기지 않는다.

차. 여행 시 유의사항

1) 치안상황

치안은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최근 들어 지하철, 버스 등 대중 교통 수단 내에서 소매치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소매치기에 주의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대중교통 내에서는 가방을 앞으로 메고, 지갑이나 귀중품의 경우 가방보다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 소매치기는 주로 대중 교통수단 내, 시내 중심가, 호텔 로비 등 사람들로 혼잡한 지역에서 일어난다. 또한 술집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점들이 10시 정도면 문을 닫고, 지하철도 10시 반 전후로 모든 운행을 종료하므로 늦은 밤 혼자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범죄 우범 지역이며, 참고하면 유익하다.

- Santiago Centro(산티아고 중심가): Ahumada, Plaza de Armas, Puente 거리
- Estación Central(산티아고 중앙역과 산티아고 대학 역 사이의 지역)
- Pio Nono(Baquedano 역 주변, 유흥가)

2) 팁 관행

칠레에는 팁이 준 의무사항으로써, 일반적으로 식당에서는 10% 정도의 팁을 별도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항, 호텔에서 포터 등에 팁을 주는 것이 관행이다. (가방당 1달러 정도) 그러나 택시의 경우에는 별도의 팁을 주지 않는다.

3) 식 수

현지인들의 경우 수도물을 식수로 이용하고 있으나 수도물에 함유된 높은 석회 성분과 불순물 등을 이유로 차와 커피 등과 같이 끓인 물을 많이 마시며 생수 사용도 점차 늘고 있다. 따라서 가급적 식수는 사먹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하게 수도물을 식수로 이용하려면 끓여 마시는 것이 좋다. 식수 구입 시 일반생수(아구아 신 가스, agua sin gas)와 탄산수 (아구아 콘 가스, agua con gas)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카. 유용한 연락처

칠레 기관

(*전화번호 안내: 103)

소방서	132	마약신고	135
산악 구조대	136	해양 구조대	137
범죄 및 교통사고	133	산불	130
항공 구조대	138	공항	(56-2) 676 3249
앰불런스	131	기차안내	(56-2) 689 6070
긴급구조요청	(56-2) 391 4444	종합병원	Clinica Las Condes -211 4000
콜택시(Las Condes)	(56-2) 211 4470	응급실	Clinica Alemana - 210 1111

한국 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주 칠레 한국대사관	(56-2) 228 4214	Alcantara 74
KOTRA 산티아고KBC	(56-2) 362 9991	Avda. 11 de Septiembre 1901, Piso 12 , Providencia
한인회관	(56-2) 777 3540	Manzano 54, Of. 603

타. 기타 유용한 정보

1) 쇼핑장소

산티아고에는 대형 쇼핑몰이 9개나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 대표적 쇼핑몰은 Parque Arauco, Alto Las Condes, Portal Dehesa 등이며 여기에는 Falabella, Almacenes Paris, Repley 등 유명 백화점, 각종 전문상점, 영화관 등이 입점해 있어 쇼핑하기에 편리하다.

Parque Arauco Shopping Center(www.parquearauco.cl)



Alto Las Condes(www.altolascondes.cl)



2) 특산품

칠레의 대표적 특산품으로는 'Lapislazuli' 라고 하는 반귀석을 이용한 각종 반지, 목걸이, 팔찌 등 장신구와 조각품을 들 수 있다. Lapislazuli는 전 세계적으로 칠레와 아프카니스탄에서만 생산되는 파란색의 반귀석으로 우리나라의 옥으로 보면 된다.

또, 칠레산 장미씨 기름(Rosa mosqueta)으로 만든 각종 피부 미용 제품(장미 기름, 아이 크림 등) 및 달팽이 크림(Crema de Caracol)이 유명하다.

칠레산 와인은 우리나라 웰빙 현상과 함께 한국소비자들에게 매우 가까워진 상품으로 프랑스산 와인에 비해 값이 상당히 저렴하고 맛도 좋은 것이 특징이다.

수공예품 등 기념품은 Pueblito Los Dominicos(www.pueblitolosdominicos.com), Centro Artesanal Santa Lucia(www.artesanosantalucia.cl), Barrio Bellavista Centro Artesanal 등에서 구입하면 좋으며, Faba(www.faba.cl)라는 기념품점은 비교적 상급의 제품들을 선별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가격이 비싼 편이다.

파. 관광 명소

1) 시내 관광 명소

칠레 수도 산티아고는 매우 현대적인 건물과 서구적인 분위기를 갖춘 도시이다. 시내의 주요 볼거리는 정부기관이 밀집해 있는 구 시가지에 대부분 위치해 있어 도보로도 쉽게 관광할 수 있다.

주요 가볼 만한 곳은 아르마스 광장, 산타루시아 언덕, 산티아고 박물관, 아우마다(Ahumada)거리, 중앙시장, 미술관, Los dominicos 등이다. 아르마스 광장은 산티아고에서 가장 오래된 광장으로, 스페인의 식민사슬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독립기념비와 산티아고를 건설한 정복자 빼드로 데 발디비아의 동상이 있으며 건물이 밀집된 중심가에 위치한 녹지로 시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다. 1769년 건립된 산티아고 박물관은 식민시대 최후의 영화를 결집한 산티아고의 대표적인 콜로니얼 건축으로 식민지 시대부터 1925년까지 산티아고 시의 변천을 볼 수 있다.

콜럼버스 이전 예술박물관은 1981년 개관하였으며 아즈텍, 마야, 잉카 등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전 중남미 문명 유물 3,0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1805년 건립된 동 박물관 건물은 신고전주의 건축양식으로 식민지시대에는 세관, 독립 직후에는 국립 도서관으로 이용되었다.

또 교민들 사이에서 남산으로 불리는 산티아고 시 중앙에 있는 '세로 산 크리스토팔 (Cerro San Cristobal)' 정상에 올라가 산티아고 시 전경을 둘러보는 것도 좋다. 정상에는 성모 마리아 상과 노천성당이 있다. 교황이 산티아고 시를 방문하였을 당시에 이곳에서 미사를 본 것으로 유명하다. 이곳은 주말에 가족 소풍 및 하이킹 인파로 가득 차니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정상을 오르는 방법은 케이블카를 이용 하거나 자동차를 이용하는 방법, 등산하는 방법 등이 있다.

2) 시외 관광 명소

□ 비냐델마르 해변

산티아고에서 자동차로 2시간 정도 서쪽으로 달려가면 태평양 연안에 비냐델마르 (Vina del Mar)라고 불리는 해양도시가 있다. 유명 리조트답게 고급 콘도, 아파트별장 등이 준비하며 관광객을 위한 카지노, 골프장, 관광 식당가 등도 자리 잡고 있다. 해안을 따라 나타나는 풍경과 해변의 모래사장이 아름다워 산책 코스로 좋다. 단 태평양과 직접 맞닿고 있기 때문에 파도가 세고 물이 차가워 수영하기에는 부적합하다.

□ 발빠라이소 해변

발빠라이소는 비냐델마르에서 약간 남쪽에 위치한 항구도시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칠레의 대표 시인 파블로 네루다(Pablo Neruda)가 생전에 머물렀던 집을 구경할 수 있으며 특색 있는 이동수단인 아센소르(Acensor)를 타고 언덕에 올라가 도시 전경과 해변을 볼 수 있다.

□ 이슬라 네그라

이슬라 네그라는 네루다가 생전에 집필을 하던 집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네루다는 산티아고, 발빠라이소, 이슬라 네그라 등 3곳에 집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슬라 네그라의 집이 가장 크고 유품들도 많이 있다. 수집품이었던 탓에 뱃머리, 모아이 석상, 색유리병 등 다양한 소장품을 볼 수 있다.

□ Valle nevado 스키장

칠레 스키장은 눈의 질이 좋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어서 외국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있다. Valle nevado 스키장은 산티아고에서 차로 약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해발 3천 미터 고지에 위치해 있는 스키장이며, 만년설이 쌓여있는 최정상 높이는 5,300 미터이다. 스키장까지 자동차로 올라가는 경관이 이색적이다.

□ 와이너리

산티아고시 주변에는 포도 생산농원 및 와이너리가 많다.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은 Veramonte, Tarapaca, Concha y Toro 등으로 반나절 코스로 와이너리 견학, 포도주 시음, 포도주 구매 등을 할 수 있다.

9.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2009 칠레 주요 국제 전시회 일정

No.	전시회명	일자	전시회 내용	홈페이지
1	Expo Vivienda	2009.4.24~26	부동산 전시회	www.feriaexpovivienda.cl
2	Agrotech	2009.7.9~11	농업 전시회	www.feriaagrotech.cl
3	Vinitech	2009.7.9~11	와인 전시회	www.vinitech.cl
4	Ambiental Expo	2009.10.7~10	환경전시회	www.expoambiental.cl
5	ICC	2009.11.15~21	지질학 전시회	www.icc2009.cl

10. 유관기관 웹사이트

칠레 유관기관 웹사이트 리스트

No.	유관기관	기관설명	홈페이지
1	Prochile	칠레 수출진흥기관	www.prochile.cl
2	AIE	칠레 전기전자 협회	www.aie.cl
3	ACTI	칠레 IT 협회	www.acti.cl
4	GECHS	칠레 소프트웨어협회	www.gechs.cl
5	Camara de Asia Pacifico	아시아 태평양 상공회의소	www.asiapacific.cl
6	Jetro	일본 무역투자진흥기관	www.jetro.cl
8	CCS	칠레 산티아고 상공회의소	www.ccs.cl
9	SOFOFA	칠레 전경련	www.sofofa.cl
10	Wines of Chile	칠레 와인생산자 협회	www.winesofchile.cl
11	ANAC	칠레 자동차 협회	www.anac.cl
12	Cochilco	칠레 구리협회	www.cochilco.cl